

崔致遠의 四山碑銘 研究*

—實態調査와 內容 및 文體分析을 中心으로—

金 文 基

目 次	
I. 序 論	Ⅳ. 四山碑銘의 內容分析
Ⅱ. 崔致遠의 삶과 四山碑銘	1. 眞鑑禪師碑銘의 構成과 內容
1. 崔致遠의 삶	2. 朗慧和尚碑銘의 構成과 內容
2. 四山碑銘의 撰述 動機와 過程	3. 智證大師碑銘의 構成과 內容
Ⅲ. 四山碑銘의 保存實態와 碑形式	4. 崇福寺 碑銘의 構成과 內容
1.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Ⅴ. 四山碑銘의 文體分析
2.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1. 對偶와 四六
3.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2. 用典과 修飾
4. 大崇福寺碑片의 發掘과 判讀	Ⅵ. 結 論

I. 序 論

新羅時代의 現傳 記錄文學은 鄉歌를 除外하고는 漢文學 뿐인데, 新羅의 漢文學은 바로 崔致遠의 文學을 指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漢詩의 경우 崔匡裕, 朴仁範, 崔承祐의 詩 10首씩이 東文選에, 王居仁의 「憤怨詩」가 三國遺事, 海東釋史, 大東詩選, 東國輿地勝覽 등에, 慧超의 五言 4首가 「往五天竺國傳」에 전하여지고, 釋 浮雲의 「四浮詩」와 金地藏의 「送童子下山」詩가 남아 있으며, 偈頌으로 她福의 「葬母偈」, 元曉의 「篇尾述偈」, 浮雪의 「歸衣偈」, 浮雪·靈照·靈熙의 「養眞偈」, 登雲의 「覺破三生偈」가 傳해지고 있지만 崔致遠의 漢詩가 아니라면 너무나 零星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文章의 경우 元曉, 太賢, 明晶, 義寂, 圓測, 璟興 등 大釋들의 글이 傳하고 있으나 대개 佛教關係 論釋일 뿐이다.

그런데, 崔致遠은 현재 100여 首의 漢詩와 350여 篇의 散文¹⁾을 남기고 있으니, 海東漢文學의 初祖達摩²⁾ 또는 開山初祖³⁾나, 東方의 文宗⁴⁾이니 하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崔致遠의 現傳 詩文은 그의 著述중 극히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桂苑筆耕 自

* 이 論文은 1986年度 文教部 自由課題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桂苑筆耕, 東文選, 芝峯類說, 三國史記, 崔文昌侯全集(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編, 1968), 孤雲先生文集, 小華詩評, 新增東國輿地勝覽, 四山碑銘 등 참조.

2) “惟北學 崔阿食一人 爲東方初祖達摩”(申靑泉: 與任和仲書).

3) “功高初祖始開山”(申緯: 東人論詩絕句).

4) “我國之通中國 遠自檀君箕子而文獻蓋蔑蔑 隋唐以來 ……雖在簡冊 率皆寂寞 不足下乘 而至于唐侍御史 崔致遠 文體大備 遂爲東方文學之祖”(小華詩評).

“致遠孤雲 有破天荒之大功 故東方學者 皆以爲宗”(白雲小說).

序에 의하면 孤雲이 入唐하여 賓貢科에 及第할 때까지 6년간 지은 詩, 賦 등이 상자에 가득했으나 自貶하여 모두 폐기해 버렸고, 그 후 私試今體 5首 一卷, 5言 7言 今體詩 1百首 1卷, 雜詩賦 30首 1卷, 中山覆簣集 1部 5卷, 桂苑筆耕集 1部 20卷을 著述하였다. 특히 桂苑筆耕은 高駢의 筆硯을 달은 후 4년간 用心하여 지은 1萬餘首중에서 精選한 것⁵⁾이라 하니 入唐後 歸國前까지 얼마나 많은 詩文을 著作했는가를 쉽게 짐작케 한다. 그리고, 新唐書 藝文志에는 “桂苑筆耕 20권과 四六集一卷 및 文集 30권이 또 세상에 행한다”⁶⁾고 했으므로 歸國後에도 수많은 詩文을 지었으나 대부분 逸失되어 全貌를 얻어 볼수 없게 되었을 뿐이니, 孤雲의 龍大한 著述活動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量的인 面에서의 탁월한 著述活動 못지 않게 孤雲은 質的인 면에서도 内外에 높이 評價 받았었다.

李奎報는 「白雲小說」에서, 唐書 藝文志에는 최치원의 四六一卷을 실었으나, 文藝列傳에 崔致遠의 傳을 設置하지 않았음을 개탄하고 그 理由를,

나의 私意로는 옛사람들은 문장에 있어서 서로 시기함이 없지 않기 때문이었으리라. 하물며 최치원은 외국의 외로운 몸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당시의 名士들을 압도했으리라? 만일, 傳을 설치하여 바른대로 그 사적을 쓴다면 그들의 猜忌에 저촉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일까? 이것은 내가 이해 못할 일이다.⁷⁾

라고 추측할 정도로 崔致遠은 당대 최상급 文人이었다.

崔致遠은 이러한 詩文 外에도 四山碑銘, 鸞郎碑序, 法藏和尚傳, 釋 利貞傳 및 佛教 관계 讚・記, 道教 관계 齋詞등을 撰述함으로써 韓國文學史는 물론 韓國文化史上 매우 重要的인 位置를 占하게 되었다. 그래서, 高麗나 朝鮮時代에도 비록 단편적이거나 崔致遠에 대한 論議가 끊임없이 이어졌었다. 특히 高麗 때는 李仁老의 「敝閑集」과 崔滋의 「補閑集」, 李奎報의 「白雲小說」, 金富軾의 「三國史記」와 一然의 「三國遺事」 등에, 朝鮮 때는 徐居正의 「東文選」을 비롯하여 成俔의 「慵齋叢話」, 洪萬宗의 「小華詩評」 및 「海東異蹟」, 李晔光의 「芝峰類說」, 盧思愼 등의 「東國輿地勝覽」, 「東京誌」, 趙挺의 「東史補遺」, 鄭克俊의 「西嶽志」, 徐居正・鄭孝恒 등의 「東國通鑑」, 吳湊의 「東史纂要」, 朴齊家的 「北學議」, 李重煥의 「擇里志」, 任璽의 「玄湖環談」, 金駟孫의 「游頭流錄」, 周世鵬의 「游清涼山錄」, 鄭述의 「游伽倻山錄」, 許穆의 「伽倻山記略」 및 說話集 등에 孤雲의 詩文, 生涯, 奇談 등이 寸評되거나 言及되었다.

- 5) “臣 崔致遠 進所著雜詩賦 及表奏集 二十八卷 具錄如後 私試今體五首一卷 五言七言今體詩共一百首一卷 雜詩賦共三十首一卷 中山覆簣集一部五卷 桂苑筆耕集一部二十卷 右臣 自年十二……此時諷詠情性 萬物名篇 曰賦曰詩 幾溢箱篋 但以童子篆刻 壯夫所慙 及忝得魚 皆爲棄物…… 蒙高侍中 專委筆硯 軍書幅至 竭力抵當 四年用心 萬有餘首 然洵之汰之 十無一二 敢比披沙見寶 粗勝毀瓦畫墁 遂勒成桂苑集二十卷”(桂苑筆耕集序)
- 6) “新唐書 藝文志云 崔致遠 四六集一卷 桂苑筆耕二十卷 注云 崔致遠 高麗人 賓貢及第爲高駢從事 其名聞上國如此 又有文集三十卷 行於世”(三國史記 崔致遠傳)
- 7) 奈何於文藝 獨不爲致遠立其傳耶 豫以私意揣之 古之人 於文章 不得不嫌忌 況致遠以外國孤蹤 入中朝 躡踏當時名輩 若立傳直其筆 恐涉其嫌 故略之歟 是予所未知者也”(白雲小說).
- 8) 無名, “東方文學의 宗祖 崔孤雲先生”(開闢 통원 17호) 1922, 11.

그러나, 崔致遠에 대한 본격적인 論議는 1920년대 이후에야 이루어졌고⁸⁾ 學術的인 研究는 1956년 徐首生의 “東國文宗 崔孤雲의 文學”⁹⁾이란 論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崔致遠에 대한 研究¹⁰⁾는 그의 業績에 비해서는 不進한 편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소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대개 詩文에 대한 연구, 生涯와 思想에 대한 연구, 說話와 小說 「崔孤雲傳」에 대한 연구, 演義的 側面에서의 연구 등 4類型으로 전개되었다.

初期에는 孤雲의 生涯와 思想 연구, 說話에 관한 研究 및 作品의 발굴과 그 眞僞 判別에 關心이 집중되었으나 차츰 詩文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孤雲의 詩文研究에 있어서도 散文보다는 詩에 대한 研究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散文의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 쓴 것은 전체의 4分の 1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외는 대부분 高駢등 남을 대신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散文만을 對象으로 연구한 예는 거의 없고, 學位 論文에서 詩와 함께 다룬 예가 몇몇 있을 정도이다.

특히, 孤雲의 思想과 文體 研究에는 물론 韓國金石文 研究에 가장 重要한 資料가 되는 ‘四山碑銘’에 대해서는 여러 分野에서 큰 關心을 갖고 단편적으로 試圖한 경우는 간혹 있으나 本格的인 研究는 찾아보기 힘든 실경이다.¹¹⁾

崔致遠이 撰한 이 四山碑銘의 碑의 크기가 韓國 最大의 것이고 堅碑歷史가 國內 現存

崔益翰, “崔孤雲의 文化的 地位,” 春秋 2권 6호, 1931.

車相瓚, “崔致遠,” 朝鮮名人傳, 1939.

윤승환, “羅唐文學의 大家 崔致遠,” 白民 3권 2호, 1947.

9) 徐首生, “東國文宗 崔孤雲의 文學(上)” 語文學(語文學會) 제1호, 1956.

——, “東國文宗 崔孤雲의 文學(下)” 語文學(語文學會) 제2호, 1958.

10) 崔致遠에 대한 연구 업적을 年代順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鄭炳昱, “崔文獻傳紹介,” (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1955), 徐首生, “東國文宗 崔孤雲의 文學(上)(下)” 語文學(語文學會) 제1, 2호, 1956, 1958), 李杜鉉, “新羅五伎攷”(서울大學論文集 제9집, 1959), 梁在淵, “新羅「金丸」巖에 대하여”(中央大學論文集 제8집, 1963), 金學主, “鄉樂雜詠과 唐戲의 比較考釋”(亞細亞研究 7권 2호, 1964), 林憲道, “崔孤雲 江山九曲研究”(가람 李秉岐博士頌壽論文集, 1966), 梁柱東, “桂苑筆耕解題”(韓國의 古典百選, 1969), 徐首生, “桂苑筆耕解題”(韓國의 名著, 1969), 李基白, “崔文昌侯全集 解題”(崔文昌侯全集, 1972), 薛盛駿, “崔致遠傳 研究”(연세어문학, 제5집, 1974), 徐首生, “崔致遠의 還國時期的 吉祥塔記에 대하여”(語文學 제31집, 1974), 李相澤, “崔孤雲傳과 斥革意識”(新丘文庫 제9권, 1974), 李聖愛, “桂苑筆耕集 校勘記,” (梨花女大 論叢 제27집, 1975), 朴魯春, “崔致遠 詩作品數 小考”(檀國大 東洋學 제5집, 1975), 朴魯春, “[千載佳句]所載 新羅文人的 詩作品”(語文研究 3권 102호, 1975), 張德順, “崔孤雲과 그의 隨筆,” (수원문학 4권 8호, 1975), 曹壽鶴, “崔致遠傳의 小說性”(嶺南語文學 제2집, 1975), 李奎大, “崔致遠의 漢詩 研究,” (高대教育大學院碩士論文, 1975), 李佑成, “南北國時代와 崔致遠”(創作과 批評 10권 4호, 1975), 張德順, “崔致遠과 說話文學”(아카데미논총 제4집, 1976), 尹榮玉, “崔孤雲傳攷”(嶺南語文學 제3집, 1976), 宋雋鎬, “崔孤雲詩의 詩想構造”(연세어문학 제9, 10합집, 1977), 崔信浩, “崔致遠論”(韓國文學作家論, 1977), 成賢慶, “崔孤雲傳 研究”(文理大學報 제11집, 1978), 趙東一, “崔致遠”(韓國思想史試論, 1978), 宋雋鎬, “崔孤雲詩의 再考”(韓國文學論叢 제1집, 1979), 徐鏡普, “崔致遠論”(嶺南大 論文集, 제12집, 1979), 李聖愛, “經學隊伍考”(國會圖書館報 제17권 3호, 1980), 金福順, “孤雲崔致遠의 思想研究”(高대碩士論文, 1980) 梁光錫, “崔孤雲의 思想과 詩”(우리문학연구 제3집, 1981), 尹光鳳, “鄉樂雜詠五首論”(1981), 柳承國, “崔致遠의 東人意識에 관한 研究”(제4회 國際佛敎學術會議, 1981), 金知見, “崔致遠撰 四山碑銘考”(제4회 국제불교학술회의 1981), 金重烈, “崔致遠의 著作”(漢城語文學 제1집, 1982) 宋恒龍, “崔致遠 思想研究”(韓國哲學思想研究, 1982), 金憲淑, “崔致遠의 詩文研究”(서울大碩士學位論文, 1982), 李九義, “崔孤雲의 漢詩研究”(嶺南大碩士學位論文, 1982), 李東歡, “僞「帝王年代曆」의 來歷”(崔孤雲先生事蹟考, 1982), 李憲洪, “崔致遠傳의 傳奇小說의 構造”(睡蓮語文論集 제9집, 1982), 裴淵亨, “崔致遠의 四山碑銘의 文學的 考究”(東岳漢文學論集, 제1집, 1983), 金重烈, “崔致遠의 文學研究”(高대碩士學位論文, 1984), 成樂喜, “崔致遠의 詩精神研究”(中央大博士學位論文, 1986).

11) 위의 註 (10) 참조.

碑中 最古에 屬한다는 事實外에도 孤雲의 作品 중 창작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聖住寺朗慧和尚白月菴光塔碑는 國寶 제 8 호로,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는 國寶 제 47 호로,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는 寶物 제 138 호로 일찌기 指定되어 있다.

이처럼 思想史的으로는 물론 國文學史的, 文化史的으로 貴重한 四山碑銘에 대한 學界의 관심이 너무나 적다는 感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四山碑銘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保存實態를 파악하는 것이 急先務라 생각된다. 解放 前後에 調査된 狀況이 國寶圖錄이나 文化財紹介에 간단히 言及되어 있거나 美術史 分野에서 大崇福寺碑片 등에 關係 部分的으로 論議된 것이 있는 形편이다. 投影된 思想이나 內容分析에 앞서 碑自體에 대한 基礎調査가 한번 賡은 明確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現況報告를 바탕으로 하여 碑文에 대한 本格的인 論議가 遂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崔致遠의 思想 또는 哲學에 대한 論難이 특히 甚한데, 思想의 규명은 詩보다는 文章을 通하여 찾는 것이 옳은 方法이요, 捷徑이라 하겠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孤雲의 文은 거개가 代人作이기 때문에 그 곳에 本人의 思想, 感情이 얼마나 反映되어 있을가 하는 疑問이 생기고 실지로 散文을 檢討해 봐도 思想을 云謂할만한 端緒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四山碑名은 한 승려의 生涯와 業績을 단순히 기술한 것이 아니라, 儒, 佛, 仙에 대한 孤雲 자신의 該博한 知識을 마음껏 펼쳐 놓았기 때문에 孤雲의 思想을 살피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文學的인 側面에서의 本格的인 考察을 위해 우선 삶의 모습과 四山碑銘의 保存實態를 파악한 후에 四山碑銘의 構成 및 그 內容, 文體 등을 구체적으로 分析하여 四山碑銘의 意義를 찾아 보고자 한다.

Ⅱ. 崔致遠의 삶과 四山碑銘의 撰述

1. 崔致遠의 삶

崔致遠은 文獻의 未備로 家系는 물론 生涯가 明確하지 못하다. 따라서, 三國史記 列傳 崔致遠條와 關係 記錄을 通하여 再構成할 수 밖에 없다.

그의 號와 字에 대해서는 記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金富軾의 三國史記에는 字를 “孤雲 또는 海雲”이라 했고 李仁老의 破閑集에는 字를 “孤雲”이라 했다. 李奎報의 白雲小說에는 字, 號를 區別하지 않고 “孤雲”이라고만 했다. 한편, 徐有集의 校印桂苑筆耕集序에는 字를 “海夫”, 號를 “孤雲”이라 했고 「開闢」誌에는 字를 “海夫”, 號를 “孤雲 또는 “海雲”이라 했으며 李殷相이 撰한 海雲台 孤雲先生碑文에는 字를 “孤雲”, 號를 “海雲”이라 했다.¹²⁾ 그 외에도 崔致遠의 字를 “孤雲”, “海雲”, 또는 “海夫”라 하고 號

12) “崔致遠 字孤雲 或云 海雲”(三國史記 列傳 崔致遠條).

를 “儒仙”이라 하기도 했다.¹³⁾ 그러나, 아뭏든 崔致遠의 號는 이제 ‘孤雲’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의 家系도 父가 肩逸이라는 것 外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三國史記 列傳에는 “史傳泯滅 不知其世系”라 하였으나 崇福寺碑名 序文에는, “先朝께서 질을 이룩할 때 큰誓願을 말하였는데 金純行이 그때의 아버지 肩逸과 함께 일찌기 이 일에 종사하였다.”¹⁴⁾라고 하여 景文王이 崇福寺를 짓고 發願文을 作成할 때 孤雲의 父가 參與했다고 하므로 孤雲의 父 肩逸은 當代의 名士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孤雲이 眞聖女王에게 時務十餘條를 지어 올리자 王이 阿飡을 除授했다¹⁵⁾고 하므로 身分은 六頭品에 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의 家系에 대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崔氏上系譜」가 1942年 慶州 祇林寺에서 發見되어 이를 자료한 世系作成이 試圖된 바 있다.¹⁶⁾ 이 資料가 信憑性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孤雲의 家系를 짐작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다. 이에 의하면, 孤雲의 始祖는 蘇伐都利이고 23世 山允(一名 肩逸)은 그의 父로서 侍郎을 지냈으며 24世 致遠은 慶州 崔氏의 中始祖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子는 殷舍, 孫은 承老요, 弟는 棲遠¹⁷⁾ 1인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聖住寺郎慧和尚白月葆光塔碑의 末尾에 “從弟崔仁浣奉教書”라고 새겨진 것을 보면 遣唐遊學生이며 名筆인 崔仁浣(後에 改名하여 彥搗)이 孤雲의 從弟임을 알 수 있다.

崔彥搗는 처음 이름을 愼之라 했으며 天性이 寬厚하고 글을 잘하였다. 羅末에 18歲로 遊學하여 唐나라에 들어가 禮部侍郎 薛廷珪 座下에서 及第하였다. 42歲에 歸國하자 나라에서는 執事省侍郎 瑞書院學士를 除授하였고 高麗 太祖가 開國하자 歸依하여 太子師 傳로서 文翰의 책임을 맡아 모든 宮院의 額號를 撰定하였고, 死後에 正匡을 追贈받고 文英이란 謚號를 받았다. 후에 官이 丈相 元鳳大學士 翰林院令 平章事에 이르렀다. 彥搗의 아들로는 光胤, 行歸, 光遠, 行宗이 있었는데 光胤은 寶貢進士였다. 彥搗는 郎慧和尚碑銘을 奉教書하는 등 書藝에 有名했을 뿐 아니라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銘, 毗盧

“文昌公 崔致遠 字 孤雲”(破閑集).

“崔致遠 孤雲 有破天荒之大功”(白雲小說).

“公名致遠 字 海夫 孤雲其號也”(校印桂苑筆耕集序).

“先生の 姓은 崔요 名은 致遠이요 字는 海夫요 號는 孤雲이며 또 海雲이니”(開關)

“구름같이 왔다 가는 인생이기에 스스로 孤雲이라 字를 짓고 號 또한 海雲이라 하고서”(孤雲 崔致遠先生略傳).

13) 車相瓚, “崔致遠”(朝鮮名人傳 권1, 1937).

徐首生, “東國文宗 崔孤雲의 文學”(語文學 제1집, 1956).

李能雨, “新羅의 知性”(韓國의 名著, 玄岩社, 1969).

특히, 崔致遠의 號를 “儒仙”이라 한 예로는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 鄭知常의 東都詩, 「東國輿地勝覽」의 紅流洞詩 등을 들 수 있다.

14) “先朝締構之初 發大誓願 金純行與若父肩逸 嘗從事於斯矣”(大崇福寺碑銘).

15) “八年春二月 崔致遠進時務十餘條 王嘉納之 拜致遠爲阿飡”(三國史記 卷之十一, 新羅本紀 眞聖王條).

16) 徐首生, 앞의 논문 참조.

17) 桂苑筆耕 卷之二十 謝賜弟棲遠錢狀에는 “某堂弟棲遠”이라 하여 棲遠이 孤雲의 從弟라 하였다.

庵真空大師普法塔碑銘, 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銘,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銘,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銘,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銘을 奉敎撰하는 등 文名을 드날렸다.¹⁸⁾

孤雲의 子라 傳하는 殷舍은 元甫에 이르렀고, 孫子라 傳하는 崔承老는 性品이 聰敏하고 學問을 좋아하여 後에 文柄을 잡았을 뿐 아니라 高麗 成宗 元年에는 正匡으로 行選官御事上柱國이 되었다고 한다.¹⁹⁾

母系는 거의 알 수 없으나, 三國史記에 “母兄인 浮圖 賢俊과 定玄師와 함께 道友를 맺고 속세를 떠나 살다가 終老했다”²⁰⁾고 하니 兄이 僧侶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孤雲의 家系는 代代로 六頭品 名門이었으니 孤雲이 詩文 및 書道의 大家로서 韓國漢文學의 祖宗이 된 것도 偶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孤雲은 서기 857년(憲安王 元年, 丁丑)에 태어났는데, 그의 出生地에 대해서는 沙梁部, 本彼部, 湖南 沃溝 등의 說이 있다. 沙梁部人이라는 說은 三國史記 列傳 崔致遠條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崔氏의 賜姓地²¹⁾라는 點과 慶州崔氏族譜에도 沙梁人이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 本彼部人이라는 說은 三國遺事에 沙梁部는 鄭氏의 祖이고 本彼部가 崔氏의 祖라 지적하고 孤雲의 舊宅이 皇龍寺 南과 味吞寺 南에 있다고 했기 때문이고,²²⁾ 沃溝人이라는 주장은 徐有渠의 校印桂苑筆耕集序에 나타나 있으나²³⁾ 別根據가 없다. 따라서 孤雲의 出生地는 沙梁部가 옳을 것 같다.²⁴⁾

어려서부터 精敏하고 知慧가 絶倫했던 孤雲²⁵⁾은 12살 때인 景文王 9年(869)에 進奉使 金胤을 따라 入唐, 留學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 하지 말라. 나도 아들이 있다 하지 않을 것”²⁶⁾이라는 父親의 엄한 訓戒를 뼈에 새겨 6년만에 實貢進士科에 及第하였다. 孤雲이 東國의 寒士로 中原의 金榜에 올라 詞苑에 文名을 떨친 사실은 桂苑筆耕 序와 三國史記 및 白雲小說에도 잘 나타나 있다. 孤雲의 桂苑筆耕序文에는,

臣이 12세에 집을 떠나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 가려고 할 때…… 臣은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마음에 새겨 잠시도 잊지 않고 헛 세 없이 懸刺하여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날이 백번하여 이루면 나는 천륜을 하여 관광한지 6년만에 이름을 金榜에 걸게 되었습니다.²⁸⁾

18)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上(亞細亞文化社) pp. 97—198 참조.

19) 高麗史 卷之九十三, 列傳 卷第六 崔承老條.

20) “與母兄浮圖賢俊及定玄師 結爲道友 棲遲偃仰 以終老焉.”(三國事記 卷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21)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 第一 儒理尼師今條.

22) “二曰突山高墟村 長曰蘇伐都利 初降于兄山 是爲沙梁部鄭氏祖…… 四曰鶻山珍支村 長曰智伯虎 初降于花山 是爲本彼部崔氏之祖 今曰通仙部 柴巴等東南村屬焉 致遠乃本彼部人也 今皇龍寺南 味吞寺南有古墟 云是 崔侯古宅也 殆明矣.”(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23) “公名致遠 字海夫 孤雲其號也 湖南之沃溝人”(校印桂苑筆耕集序).

24) 金重烈, 앞의 논문 p. 25 참조.

25) “幼穎慧絶倫”(徐有渠: 校印桂苑筆耕集序).

26) “當乘桴之際 亡父誡之曰 十年不第進士 則勿謂吾兒 吾亦不謂有兒”(崔致遠: 桂苑筆耕序).

27) “巫峽重峯之歲 絲入中華…… 崔致遠入唐登第 以文章名動海內”(李奎報: 白雲小說).

28) “臣自年十二 離家西泛…… 臣佩服嚴訓 不敢弭忘 懸刺無違 冀諧養志 實得人百之已千之 觀光六年金名榜尾”(崔致遠: 桂苑筆耕序).

라고 하였고, 같은 해에 科擧에 급제한 중국인 벗 顧雲의 贈別詩에는,

十二乘船渡海來 열 두살에 배 타고 바다 건너와
文章感動中華國 문장으로 中華國을 감동시켰네.
十八橫行戰詞苑 열 여덟엔 詞苑을 마구 휩쓸어
一箭射破金門策²⁹⁾ 한 화살에 金門策을 쏘아 맞혔네.

이라 했음을 볼 때, 孤雲은 12살에 入唐하여 아버지의 嚴訓을 잊지 않고 피나는 노력으로 학업에 전념, 18세에 實貢 進士科에 급제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孤雲은 聖·眞骨도 아닌 六頭品이기에 自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出世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자각하여 개인의 영달 뿐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위해 學問에만 몰두, 狀元及第한 것 같다. 그는 그 때의 기쁨을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영광(非獨榮親國亦榮)”이라고 자랑하고 ‘鷄口’됨을 얻어 옛날의 수치를 씻었다고 슬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도통순관 전증서이사 최치원은 다행히 하찮은 기술을 가지고 재생의 열에 끼이자 먼저 牛心을 썰어 鷄口가 되었은 즉, 薛侯와 더불어 척차 다루기를 면했고 趙將으로 하여금 혐의를 품지 않게 되었으니 실로 지극히 공정함을 만나 예전 수치를 씻었습니다.”³⁰⁾

이 글에서 “鷄口가 되었다”는 것은 장원 급제했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예전수치”란 孤雲 前代에 實貢科試에서 渤海人인 烏昭度가 上等이 되었고 新羅人이 次等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孤雲이 장원이 됨으로써 옛날의 수치를 씻었다는 것이다.

이 때는 무엇보다 漢語 공부와 科擧試驗에 필요한 經書를 耽讀하는 것 외에 詩賦學 習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³¹⁾, 급제 후 2년 동안은 詩作活動만 한 것 같다.

이 때에 느껴지는 심정을 읊고 사물을 빗자하여 篇을 이룬한 바 그 賦니 詩니 한 것이 거의 상자에 가득하였사오나 마치 어린이의 장난거리와 같아서 장부로서 부끄럽게 여겨 과거에 합격되자 모두 버렸사옵니다. 이내 東都에 유랑하여 붓으로 발거리를 삼게 되자 드디어 賦 5수, 詩 100수, 雜詩賦 30수를 모아 3篇을 만들었습니다.³²⁾

三國史記 列傳의 “調授宣州溧水縣尉”라는 기록과 「初投獻太尉啓」에 의하면, 孤雲은 20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溧水縣尉란 벼슬에 나아가게 되었다.

열 두 살에 鷄林을 떠났고 스무살에는 鶯谷으로 옮기게 되어 바야흐로 靑襟의 벼들을 接하고 곧 黃綬의 벼슬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³³⁾

29)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第六 崔致遠條.

30) “前都統巡官殿中侍御史崔致遠 幸將薄技 獲廁諸生 先啗牛心 得爲鷄口 免與薛侯爭長 不令趙將懷嫌 實逢至公 得雪前恥”(桂苑筆耕集, 與禮部裴尚書瓚狀).

31) “譯殊方之語言 學聖代之章句”(桂苑筆耕 卷之十七, 再獻啓).

32) “此時諷詠情性 寓物名篇 曰賦曰詩 幾溢箱篋 但以童子篆刻 壯夫所慙 及忝得魚 皆爲棄物尋以浪跡東都 筆作販囊 遂有賦五首 詩一百首 雜詩賦三十首 共成三篇”(桂苑筆耕集序).

33) “自十二則別鷄林 至二十得遷鶯谷 方接靑襟之侶 旋從黃綬之官”(初投獻太尉啓).

그는 溧水縣尉가 된 이후에도 詩作活動을 계속하여 文集 5卷을 만들어 覆篋集이라命名하기도 했다.³⁴⁾

縣尉가 되자 生活은 다소 넉넉해졌으나 雄志를 품고 있던 孤雲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詩博能文의 人材를 뽑는 博學宏詞科에 應試하기 위해 21세 되던 겨울에 縣尉職을 사임하고 入山하여 다시 學問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縣尉 벼슬을 그만 두게 되자 祿俸이 없어져서 드디어 글 읽을 양식을 구할 길이 없을 정도로 구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는 수 없이 淮南의 藩帥 高駢에게 採錄해 주기를 수없이 懇請하였다. 孤雲은 高駢에게 올리는 글에서, 苦學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고백하여 현실적인 苦楚한 삶과 學問을 향한 理想과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벽을 기대고 冥想에 잠기며 문을 닫고 고요히 앉았으니, 자리는 차가운데, 창바람이 눈을 해치고 붓은 팔뜨는데 벼루 물은 얼음이 되니, 尼父의 가족 編이 끊어지기를 바라나 叢和의 고삐를 재촉하는 데야 어찌하리까. 萬卷의 經史를 가리키면서 三冬의 짧은 해를 한스러워 하다가, 언 베게에 마음이 상하고 외로운 등불에 그림자를 짝할 때 찬 漏水는 이별의 눈물을 더뜨리게 하고 먼비의 다듬이 소리는 나그네의 마음 두근거리게 하니, 공연히 寧戚의 悲歌를 괴로워 하고 陸機의 편안한 잠을 이룰 길 없으니, 친 갈래의 울적함이 쌓인 채 밤중의 寂寥함을 견디는 것을 상상할 것입니다. ……客舍에 들기가 원수보다 싫으니 어디로 향해야 生計를 안돈하겠습니까. 오직 道가 폐해지려 함을 근심함이라 어찌 사람들이 쉽게 알아주지 않는다 말하겠습니까.³⁵⁾

그는 만리 타향에서 궁지에 처한 절박한 심정과 宦路에의 꿈을 다음과 같이 詩를 지어 高駢에게 陳情하기도 했다.

海內誰憐海外人	늑타서 해외 사람 보살펴 주리.
問津何處是通津	물노라, 어디제가 내갈 곳인가.
本求食祿非求利	부자는 내가 싫고 벼슬 살고저.
只爲榮親不爲身	어버이 위함이지 내몸은 아녀.
客路離愁江上雨	강상의 비소리 이별의 시름.
故園歸夢日邊春	고향봄은 꿈속에 가물 거리네.
濟川幸遇恩波廣	濟川이라 恩波도 넓으시거니.
願濯凡纓十載塵 ³⁶⁾	씻어다오, 갓 끈에 낀 십년 먼지를.

이 밖에도 〈長安旅舍于與慎微長官接隣有寄〉, 〈秋日再經貽吁縣寄李長官〉, 〈山陽與鄉友話別〉, 〈東風〉 등의 詩를 통하여 가난에 겨운 나그네의 신세 한탄과 哀愁의 情을 읊기도 했다.³⁷⁾ 그 유명한 詩 〈秋夜雨中〉도 이때 지은 것 같다.

드디어, 同年友 顧雲의 주선으로 高駢과 因緣을 맺게 되어 처음에는 館驛巡官이 되었

34) “兩後調授宣州溧水縣尉 祿厚官閒 飽食終日 仕優則學 免擲寸陰 公私所爲 有集五卷 益勵爲山之志 爰標覆篋之名”(桂苑筆耕集序).

35) “如踞壁冥搜 杜門寂坐 席冷而窓風擺雪 筆乾而硯水成冰 欲爲尼父之絕編 無奈叢和之促轡 即可知指萬卷之經史 恨三冬之景光 及其凍枕傷神 孤燈伴影 寒漏則滴殘別淚 遙砧則擣破羈心 空勞寧戚之悲歌 莫繼陸機之安履 亦可想貯千端之鬱邑 過五夜之寂寥…… 投客舍而方甚死饑 指何門而欲安生計 唯慮道之將廢 豈言人不易知”(桂苑筆耕集 卷之十七, 再獻啓)

36) 桂苑筆耕集 卷之二十, 陳情上太尉詩.

37) 上國飄蓬久 多慚萬里人

다가³⁸⁾ 1년 후에 蓮府로 들어가 顧雲과 함께 高駢의 書記職을 맡게 되었다.

이 때, 高駢이 諸道行營兵馬都統으로서 黃巢의 亂을 平定하는 데 從軍하면서 「檄黃巢書」를 짓게 되었는데, 黃巢가 이 檄書를 읽다가 “오직 天下의 사람들만이 너희를 죽이고자 할 뿐 아니라 땅 속의 귀신들도 몰래 너희를 죽일려고 의논했다”라는 데목에 와서는 자신도 모르게 床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었다³⁹⁾고 한다. 이로써 孤雲은 文名을 더욱 떨쳤고 文으로써 補弼을 잘 한 功으로 高駢이 天子께 추천하여 都統巡官 承務郎侍御史 內供奉에 昇職되고 紫金魚袋도 하사받았다. 그 후 4년간 孤雲은 高駢을 대신하여 表, 狀, 啓, 書, 檄文 등을 지었는데 그 量이 萬餘篇이나 되었다⁴⁰⁾고 하니 孤雲의 文章力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孤雲은 어린 나이로 入唐하여 弱冠에 實貢科에 급제하고 高駢의 幕下에서 從事官으로 활약하면서 唐代 一流文士들과 많은 交遊를 하였는데, 특히 同年 顧雲과 江東 詩人 羅隱 및 高駢과는 특별한 交友관계를 맺었다.

孤雲과 親交가 가장 깊었던 顧雲의 字는 垂象이며 當時 芳林十哲의 本據地인 九華山에서 修學했는데, 孤雲과 同年友로서 高駢의 蓮府에서 함께 從事官으로 일했다. 顧雲은 唐의 有名 詩人이었으니 孤雲은 「獻詩啓」에서 그의 詩에 대해 “고래가 바다 물결을 뿜는 듯하고 詞鋒은 칼날이 雲漢에 기대인 듯하다.”⁴¹⁾고 칭찬했다. 孤雲이 新羅로 돌아올 때 顧雲은 贈別詩인 소위 「儒仙歌」⁴²⁾를 지어 中華에 펼친 孤雲의 特出한 文才를 찬양하자 孤雲은 다음과 같은 有名한 答詩를 읊어 錦衣還鄉하는 기쁨을 노래했었다.

巫峽重峰之巖	나이 열 두 살에
絲入中華	寒微한 몸 중국에 들어
銀河列宿之年	이십 팔세 되는 해에
錦還故國 ⁴³⁾	立身하여 돌아가네.

那堪顏氏巷 得接孟家隣
守道惟稽古 交情豈憚貧
他鄉少知己 莫厭訪君頻(東文選; 長安旅舍于與慎微長官接隣有寄)

孤逢再此接恩輝 吟對秋風恨有違
門柳已凋新歲葉 旅人猶着去年衣
路迷霄漢愁中老 家融煙波夢裡歸
自笑身如春社鷺 書梁高處又來飛(東文選; 秋日再經貽野縣寄李長官)

相逢暫樂楚山春 又欲分離淚滿巾
莫怪臨風偏愴望 異鄉難遇故鄉人(東文選; 山陽與鄉友話別)

知爾新從海外來 曉窓吟坐思難裁
堪憐時復搢書幌 似報故園花欲開(桂苑筆耕集 卷二十, 東風)

38) “右某 今月二十五日 伏奉公牒特賜署充館驛巡官者 思降台階 光生旅舍”(桂苑筆耕集 卷之十七, 謝職狀).

39) “巢讀至 不惟天下之人 皆思顯戮 抑亦地中之鬼已陰誅 不覺下床而屈”(白雲小說).

40) 앞의 주 (5) 참조.

41) “某竊覽同年顧雲校書 獻相公長啓一首短歌十篇 學派則鏤噴海濤 詞鋒則劒倚雲漢 備爲贊頌 永可流傳”(桂苑筆耕集, 獻詩啓).

42) 我聞海上三金龜 金龜頭戴山高高 山之上兮珠宮貝闕黃金殿 山之下兮千里萬里之洪濤 傍邊一點鷄林碧 龜山孕秀生奇特 十二乘船渡海來 文章感動中華國 十八橫行戰詞苑 一箭射破金門策(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儒仙歌).

43) 李奎報의 白雲小說 및 李仁老의 破閑集 卷中

羅隱은 本名이 橫이고 字는 昭諫인데, 三國史記 列傳 崔致遠條에는 “그는 재능을 자부하고 스스로를 고상히 하여 남에게 가벼이 許與하지 않았다”⁴⁴⁾고 하였다. 그러나,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羅隱과 孤雲이 친할 수 있었던 것은 孤雲의 文才 때문이라 생각된다.

高駢의 字는 千里고 幽州人으로 南平郡王 崇文의 孫子인데, 어려서 朗拔하고 好文하여 많은 儒者들과 더불어 從遊하며 理道를 말하기를 좋아하였다.⁴⁵⁾ 그는 文武를 兼全하여 大將軍이면서도 詩集이 唐書 藝文志에 실려 있다. 兵馬都統이 孤雲을 從事官으로 택한 것은 孤雲의 才能을 높이 評價했기 때문인 것이다. 高駢이 「雪詩」⁴⁶⁾를 지어 孤雲의 人格과 文才를 칭찬하자 孤雲은 「雪詠詩」⁴⁷⁾를 읊어 文名을 칭송하는 등 文友로서의 一面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裴瓚, 張喬, 吳融, 楊瞻, 吳翬, 張尚書, 于愼長官, 李展長官等과는 詩로써 酬唱했고 李蔚相公, 宋綯侍御, 李瑄副使, 周繁, 高秘書, 濟源, 金部郎中, 女道士, 希郎和尚 등에도 詩文을 보낸 적이 있어 交遊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孤雲은 宰帥, 藩帥 등 고관으로부터 文人은 물론 道士나 僧侶 등 각계 각층과 널리 交遊했었다.⁴⁸⁾ 이러한 多方面的 交遊로 孤雲은 儒·佛·道 등에 該博한 知識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浩瀚한 文章을 이루는 滋養이 되었던 것이다.

孤雲은 28세(884) 때에 歸國 길에 올랐다. 桂苑筆耕 卷之二十 〈石峰〉詩의 詩題 來註에,

中和 甲辰 十月에 사진차 大珠山 아래 배를 띄우게 되었다. 그 때 보이는 대로 제목을 붙여서 風月을 읊었던 詩 10수를 모아 高員外에게 보냈다.⁴⁹⁾

는 기록과 白雲小說의 “銀河列宿之年 錦還東國”이라는 詩句 및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崔致遠條에,

28세 때에 부모를 뵈러 갈 뜻을 품으니 僖宗이 그것을 알고 光啓 元년에 詔書를 가지고 사진으로 오게 하였다.⁵⁰⁾

라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孤雲은 28세 되던 해 甲辰 10월 경에 형식상 사진의 임무를 띠고 淮南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것 같다.

그러나, 도중에서 風浪을 만나 山東省 근처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듬 해 봄에 西海岸

44) 始西遊時 與江東詩人羅隱相知 隱負才自高 不輕許可人 示致遠所製歌詩五軸(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45) “高駢字千里 幽州人 祖崇文 元和初功臣 封南平王…… 幼而朗拔 好爲文 多與儒者遊 喜言理道”(舊唐書 卷一百八十二 列傳 第一百三十二 高駢條).

46) 六出花飄入戶時 立看修竹變瓊枝
逡巡好上高樓看 盡盡人間惡路歧(唐詩紀事 卷第六十三, 雪詩)

47) 五色毫編六出花 三冬吟徹四方詩
始知絕句勝聯句 從此芳名掩謝家(桂苑筆耕 卷之十七, 雪詠).

48) 金惠淑, “崔致遠의 詩文 研究”(서울大 碩士學位 論文, 1981), pp. 42—48.
金重烈, 앞의 논문, pp. 37—38.

49) “中和甲辰年冬十月 奉使東泛 泊舟於大珠山下 凡所入目 命爲篇名 嘯月吟風 貯成十首 寄高員外”(桂苑筆耕集 卷之二十, 石峰).

50) “年二十八歲 有歸寧之志 僖宗知之 光啓元年 使將詔書來聘”(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海門에 도착, 신라로 돌아왔다.

개가 배를 타고 乳山에 이르렀을 때부터 십여일 간을 바람을 기다리다 이미 겨울이 되었다. 뱃사공이 나아가기 어렵다고 하면서 머물자고 간청했다.…… 이제는 이미 曲浦에 의탁하여 잠시 돛을 내리고 모옥을 꾸려 뜰이나 가리고 여파 죽으로 배를 채우면서 남은 겨울을 지내고 떠날 시기를 결정하였다. 만일 봄날이 따뜻해지면 계속 거칠게 불던 바람은 잘 터이니 곧장 돛을 날려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⁵¹⁾

지난 해 조겨울에 동쪽으로 牟東에 다다르니, 이 때는 창해가 아직 멀고 겨울 玄律이 다 되어 가는데, 돌결의 형세는 오란하여 鷗이라도 배에 뜨기가 어려웠고, 바람소리가 몹시 나서 鷗이 앉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剡木을 대놓고 斷蓬을 편히 여겼다. 어저께 날이 좋아 비록 동근 달을 닮았으나 오히려 큰 바람이 두려워서, 목을 길게 빼고 제비 오는 따뜻한 날을 기다리고 눈을 돌려 돌아가는 기러기를 보내고 있었다. 바야흐로 무사히 건너기를 바라니 짐개가 좋아서 바로 鷗林을 향하여 가벼운 배를 띄웠도다.⁵²⁾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孤雲은 28세 때 중국 淮南에서 新羅를 향해 출발은 했으나 風浪으로 인해 山東省에서 겨울을 지내고 29세 때 봄에 재출발하여 귀국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귀국은 孤雲이 29세 때인 憲康王 11年 3月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謝許歸觀啓」에 “열 두 살에 집을 떠나 지금 벌써 18년이나 지났다”⁵³⁾는 기록과 「謝探請料錢狀」에서 “집을 떠난지 18년”⁵⁴⁾이라 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

孤雲은 막상 귀국하려 하니 오래 동안 떠나 있던 羅末의 혼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민하였다.

비록 海島를 찾아서 영광되게 돌아감은 고금에 견줄 데 없으나 또 煙波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니 가야 할지 있어야 할지 결정 못하겠습니다.⁵⁵⁾

그는 歸國後의 去就에 불안울 느끼면서도 唐나라의 末期의 兆朕을 예견하고 歸國을 서두른 것 같다.

그가 幕府에 있는 수년 동안에 高駢이 죽어 할만한 것이 있지 못할 것과 呂用之, 諸葛殷 등이 방탕하고 허탕하여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조연히 떠났더니 떠난지 三年 만에 淮南에 난리가 났을 즉 또한 그 기미를 안 明哲君子和 같음이 있다.⁵⁶⁾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더니 宦侍들이 안에서 권세를 남용하고 藩鎮들이 밖에서 방자하게 굴어 朱梁이 篡代할 징조가 이미 싹트고…… 그 道를 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⁵⁷⁾

51) “某舟船行李 自到乳山 旬日候風 已及冬節 海師進難 懇請駐留…… 今則已依曲浦 暫下飛廬 結茨茅以庇身 糗藜藿而充腹 候過殘臘 決撰行期 若及春日 載陽 必無終風且暴 便當直帆 得遂榮歸”(桂苑筆耕集 卷之二十, 上太尉別紙第四).

52) “去歲初冬 及東牟東 以滄流尚遠 玄律將窮 浪形匍匐而鷗難浮艦 風響轟轟而鷗恐辭鰲 遂艤剡木 聊安斷蓬 一昨雖迎端月 猶濯後風 延頸而待逢鷺回眸而送盡歸鴻 方期利涉 龜從筮叶 直指鷗林 輕浮芥葉”(桂苑筆耕集 卷之二十, 祭嶺山神文).

53) “自年十二離家 今已二九載矣”(桂苑筆耕集 卷之二十, 謝許歸觀啓).

54) “別庭聞 已十八年”(桂苑筆耕 卷之十八, 謝探請料錢狀).

55) “雖尋海島而榮歸 古今無比 且望烟波而感泣 去住難安”(桂苑筆耕 卷之二十, 謝許歸觀啓).

56) “若其居幕數載 知高駢之不足有爲 呂用之諸葛殷等之誕妄必敗 超然引去 去三年而淮南亂作則 又有似乎 知幾明哲之君子”(徐有渠; 校印桂苑筆耕集序).

57) “惟其欲仕唐也 則宦寺擅於內 藩鎮橫於外 朱梁篡代之兆已萌…… 而望其行吾道乎”(東史纂要).

孤雲은 歸國의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18년만에 錦衣選鄕하게 되자 자신의 選國이 집안의 榮光뿐 아니라 國家의 榮光이라고 自矜하였다.

自古雖誇畫錦行	금의환향 예부터 자랑하지만
長卿翁子占虛名	장경옹자 허명이 부끄럽구려.
既傳國信兼家信	국신을 받들고 가신 얻으니
不獨家榮亦國榮	집안의 영광이요 나라의 영광.
萬里始成歸去計	만리에서 고향으로 떠나려 하니
一心先算却來程	마음속엔 고향길 문득 와 있네.
望中遙想深恩處	부모님 계신곳 멀리서 그려보니
三朶仙山目畔橫 ⁵⁸⁾	세송이 신선은 눈두덩 앞에.

孤雲은 歸國하여 憲康王으로부터 侍讀兼翰林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監을 제수 받았다. 翰林⁵⁹⁾의 임무가 事大의 文章을 짓고 使行을 영접하는 것이므로 事大의 文章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記, 讚, 願文, 碑文 등을 지었다. 다음 해인 憲康王 12년에 唐에서 지었던 글과 歸國時 지은 글을 모아 엮은 28卷의 詩文集을 임금에게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新羅는 末期의 타락상이 風靡하는 혼란한 사회가 되었고, 孤雲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이 貴族들로부터 猜忌와 疾視의 대상이 되어 失意에 빠지고 말았다. 한 몸의 榮華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을 줄도 모르고 달콤한 것만 찾는 신라인의 群像, 마음 트고 의논할 知己 없는 현실을 〈寓興〉이란 시를 통하여 탄식하였다.

願言肩利門	너 부디 이익 길엔 생각을 끊고
不使損遺體	부모 주신 귀한 몸 상치 말거라.
爭奈探珠者	다투어 진주를 캐려는 사람
輕生入海底	목숨 걸고 바다 밑을 들어 가려고.
身榮塵易染	몸의 영화 티끌에 더럽기 쉽고
心○垢難洗	마음 때는 물로도 씻기 어렵네.
澹泊與誰論	누구와 담박히 의논하리오
世路嗜甘醴 ⁶⁰⁾	세상 사람들 달콤한 술만 좋아하니.

孤雲은 唐에서 歸國한 후, 自身의 뜻과 抱負를 펴 보려고 했으나 주위의 猜忌와 羅末의 社會의 矛盾 때문에 憲康王이 昇遐한 886년에 外職으로 나가 太山郡 太守가 되었다가⁶¹⁾ 그후 富城郡 太守로 옮겼다. 37세 되던 眞聖王 7년에 納旌節使 金處誨의 溺死 事件으

58) 桂苑筆耕集 卷之二十, 行次山陽續成太尉寄賜衣段令充歸觀續壽信物體以詩謝.

59)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에서 “臣竊以東人西學 惟禮與樂 至使攻文以餘力 變語以正音 文則傳之修表章 陳海外之臣節 語則傳之達情禮 奉天上之使事 職曰翰林 終身從事”라 함을 볼 때 翰林學士란 遣唐留學生들에게 의례적으로 주었던 직책인 듯하다.

60) 崔文昌侯全集 卷一, 寓興.

61) “致遠自以西學多所得 及來將行已志 而衰季多疑忌 不能容 出爲太山郡太守”(三國史記 卷第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憲康王 十二年 丙午 七月 王薨 朝廷多疑忌 出爲太山郡太守”(孤雲先生文集 附錄, 家乘)

로 賀正使가 되어 入唐하게 되었으나 當時 흉년이 들고 도처에 도적이 발호하여 길이 막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후에 다시 使命을 받들고 唐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年代는 알 수 없다.⁶²⁾

그 후, 義昌·天嶺郡의 太守를 지내다가⁶³⁾ 眞聖王 8年 2월에 時務十餘條를 올리니 王이 嘉納하고 阿湊으로 삼았다.⁶⁴⁾ 이렇게 時務十餘條를 올린 것을 볼 때 이때까지는 國政을 바로 잡아 보려는 의욕이 있었던 것 같다. 孤雲은 그의 마지막 抱負가 실현되지 않고 나라가 점차 기울어지자 伽倻山에 들어가 隱居하고 말았다. 그의 入山詩인 〈贈山僧〉에서 한 번 청산에 들어 은둔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보면 그때의 실망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僧乎莫道青山好	저 좋아 산이 좋다 말하지 말게.
山好何事更出山	좋다면서 왜 다시 산을 나오나.
試看他日吾踪跡	저 뒷날 내 자취 두고 보게나.
一入青山更不還 ⁶⁵⁾	한번 들면 다시는 안 돌아 오리.

그는 山林 속이나 江海 가를 소유했던 臺榭를 짓고 松竹을 심으면서 글씨 쓰기와 史書 쓰기에 힘쓰는 한편 시를 지으면서 지냈는데, 慶州의 南山, 榮川의 永山, 陝川의 淸涼寺, 智異山의 雙谿寺, 馬山의 別墅 같은 곳에서 노닐기도 했다.⁶⁶⁾ 俗世의 名利를 잊고 山林 속에서 글씨 쓰고 詩를 읊으면서 隱居하는 모습은 그의 詩〈寄顓源上人〉에도 잘 나타나 있다.

終日低頭弄筆端	종일토록 머리 숙여 붓끝을 회롱하니
人人杜口話心難	사람마다 입 막아 통정하기 어려워.
遠離塵世雖堪喜	시끄러운 세상 멀리하니 기쁘긴 하지만
爭奈風情未可闌	그리운 풍정 못내 버릴 수 없네.
影鬪清霞紅葉逕	던 놀 그림자 단풍잎에 스치고
聲連夜雨白雲湍	밤을 지낸 빗소리 흰 구름 세에 나뉘.
吟魂對景無羈絆	詩情은 경치 대해 속박이 없고
四海深機憶道安 ⁶⁷⁾	세상 深機도 생각하니 편안하네.

그가 언제부터 入山, 隱居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의 著作活動을 통해 볼 때 42세 되던 孝恭王 2年(戊午, 898)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40세 때는 讓位表를 짓고, 41세 때는 謝嗣位表, 謝恩表, 謝不許北國居上表를 지은 사실이 있으며, 42세 되던 해 正月

62) “唐昭宗 景福二年 納旌節使兵部侍郎金處誨沒於海 即差樞密使金峻爲告奏使 時致遠爲富城郡太守 祗召爲賀正使 以比歲饑荒 因之盜賊交午 道梗不果行 其後致遠亦嘗奉使如唐”(三國史記 卷第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63) “孤雲嘗上十事 諫其主 主不能用 伽倻之於天嶺 不百里而近 則其超然遐舉者 豈非在郡時耶”(朴趾源; 燕岩集 卷之一).

64) “公進時務十餘條 王嘉納之 以爲阿湊”(三國史記 卷 第十一, 眞聖王八年條).

65) 국역孤雲先生集下 p. 50.

66) 三國史記 卷 第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참조.

67) 崔文昌侯全集 pp. 33~34

에 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를 시작으로 이 후는 계속 佛敎關係著述을 남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식구들을 이끌고 해인사에 숨어 살면서 母兄인 僧 賢俊과 定玄師와 함께 道友를 맺고 한가로이 노닐며 餘生을 마쳤다⁶⁸⁾고 한다.

孤雲의 죽음에 대해서는 神仙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나 “묘가 湖西 鴻山에 있다”⁶⁹⁾는 校印桂苑筆耕集序의 기록과 “세상에서 시신을 해탈하고 갔다지만 무덤이 빈 산 속에 있다네”⁷⁰⁾라고 한 佔畢齋의 글을 통해 볼 때, 神仙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後代人이 孤雲을 神格化시킨 결과임을 알 수 있다.

孤雲은 六頭品 出身으로 12세에 入唐하여 18세에 實貢科에 합격하고 高駢의 從事官이 되어 檄黃巢書를 짓는 등 文筆로 이름을 中華에 떨쳤으나 雄志를 다음껏 펴지 못했고 歸國하여서는 羅末의 社會的 矛盾과 限界로 인해 中國에서 닦은 學問과 經綸을 國政에 反映시키지 못하고 落魄, 隱居하고 말았으나, 그가 남긴 詩文은 羅人들의 優秀性과 羅末文化를 代辯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결국 孤雲은 社會的 矛盾과 改革의 必要性을 認識한 先覺者였으나 積極的으로 批判하고 抵抗하지 못한 消極的인 知性人이요 彷徨하는 선비였다고 評價할 수 있다.

2. 四山碑銘의 撰述 動機와 過程

孤雲은 歸國後에 政治參與에의 길이 막힘으로써 끝내 太守職을 포기하고 入山하여 僧侶인 母兄 賢俊과 定玄師와 함께 道友를 맺고 餘生을 보냈을 뿐 아니라 四山碑銘을 비롯한 많은 佛敎關係 著作을 남겼지만 儒敎思想을 버리지 않은 儒者라 할 수 있다. 특히, 四山碑銘에는 佛敎에 대한 該博한 見解를 펼치고 있으며 桂苑筆耕에는 佛敎뿐 아니라 道敎에 대한 깊은 理解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唐나라 留學時節에 닦은 佛敎나 道敎에 대한 知識을 펴고 佛·道의 意義를 各各 認定한다는 것이지 孤雲의 思想이 佛敎나 道敎로 轉換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人間이 多樣한 思想을 가지기는 어려우며 複合된 思想을 가졌다는 것은 뚜렷한 思想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孤雲은 항상 儒者임을 自稱하거나 儒道에 힘쓰고 이를 遵守한다고 하였다.

願腐儒之今作也(朗慧和尚碑銘)

至己巳歲 有國民崔儒道 嫁帝鄉 而名掛輪中 職攀柱下者 曰崔致遠(智證大師碑銘)

伏蒙將軍念以來自異鄉 勤於儒道(桂苑筆耕集卷 十九, 與客將書)

所以未競官塗 但尊儒道(桂苑筆耕集卷 十七, 再獻啓)

某玄菟微儒(桂苑筆耕集卷 十九, 謝元郎中書)

그리고, 그는 孔子와 顏子등 聖賢의 言行을 늘 規範으로 삼았고 堯舜時代를 理想社會

68) “最後帶家 隱伽倻山海印寺 與母兄浮圖賢俊及定玄師 結爲道友 棲遲偃仰以終老焉”(三國史記 卷第四十六, 列傳 崔致遠條).

69) “葬在湖西之鴻山”(徐有榮, 校印桂苑筆耕集序).

70) “佔畢先生 世上但云尸解去 那知馬鬣在空山”(盧相稷: 孤雲先生文集重刊序).

로 생각했으며 仁과 禮를 강조하였다.⁷¹⁾

每嘗窺顏冉之牆(桂苑筆耕集 卷十七, 獻詩啓).
 伏惟感慰 昔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桂苑筆耕集 卷十九, 賀徐禮部尚書別紙).
 仲尼云寬則得衆 信則任人焉(桂苑筆耕集 卷十四, 呂用之兼管山陽都知兵馬使).
 人能弘道 賢臣以致堯舜爲先(桂苑筆耕集 卷十九, 與金部郎中別紙).
 必可驅堯舜而殿禹湯 苑五岳而池四海 盛矣美矣(桂苑筆耕集 卷一, 賀通和南蠻表).
 得非尼父所謂無憂者 其惟文王 父作之 子述之者耶(大崇福寺碑).
 臣子之所以立身者 以孝以忠 慎終如始(桂苑筆耕集 卷四, 奏請從事官狀).
 仁以推濟衆之誠 孝以舉尊親之典(大崇福寺碑銘).

그런데, 孤雲은 佛敎나 道敎에 대하여 歸依한다든가 하는 마음의 所之를 나타내지 않았다. 佛敎나 道敎에 대해 識見이 풍부하고 理解가 깊다고 하여 佛·道의 思想이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孤雲이 四山碑銘을 撰述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이 章에서는 四山碑銘의 撰述動機와 過程, 四碑의 銘文 創作의 時期와 經緯에 대해 論하고자 한다.

新羅는 下代에 이르면서 政治, 社會, 經濟, 思想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政治的인 面에서는 政治의 不安과 함께 骨品制의 矛盾을 打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王權의 약화로 惠恭王때는 大恭의 亂을 비롯한 96角千의 亂이 이어졌고, 그 뒤에 金良相, 金憲昌, 金祐徵, 張保皋 등에 의한 王位쟁탈전이 전개되었으니, 이는 바로 돌궐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眞骨 자체 內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어 축출이나 강등 현상이 일어났고 六頭品 以下는 高位官職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骨品制의 모순을 克服하려는 노력이 적극화되었는데, 이들이 택한 방법은 唐나라 留學이었다.

新羅는 善德女王 9년(640)이후 唐과의 정치적 교섭으로 王子로써 宿衛를 삼아 唐廷에 侍留게 하고 學生을 唐 國學에 入學시켜 修業케 했는데, 기간은 10년이고 費用은 兩國 共同負擔이었으니 이른바 官費留學生이었다. 宿衛는 원칙적으로 王族의 子弟를 파견하였으나 宿衛學生은 下代로 내려오면서 가까운 王族中에서 選拔되되 그의 文章力, 文筆力을 위주로 뽑은 것 같다. 實貢科 設置 以前까지는 宿衛學生 현황을 알 수 없고, 實貢科 設置 以後 科擧에 합격하여 文名을 날린 사람은 東文選⁷²⁾과 東史綱目⁷³⁾에 의하면 58

71) 金福順, “孤雲 崔致遠의 思想研究”(高麗大 碩士論文, 1980)

72) “唐長慶初 有金雲卿者 始以新羅貢 題名杜師禮勝由此以至天祐終 凡登貢貢科者五十有八人 五代梁唐 又三十有二人 蓋除渤海數人 餘盡東土”(『東文選』卷84, 送奉使李中父還朝序).

73) “金雲卿始登貢貢科 所謂貢貢者 每月別試 附名榜尾 自雲卿後 至唐末 登科者五十八人 五代梁唐之際 亦至三十二人 其表知名者 有崔利貞·金叔貞·朴季業·金允夫·金立之·朴亮之·李同·崔襄·金茂先·楊穎·崔渙·崔匡裕·崔致遠·崔慎之·金紹遊·朴仁範·金渥·崔承祐·金文蔚 等 皆達于成才而仁範以詩鳴 渥以禮稱 致遠慎之承祐 其尤著者也 又有元桀·王巨仁·金垂訓等 併以文章著名 而史佚不傳也(『東史綱目』卷五 上, 眞聖女王 己酉 三年條).

人이었다. 이들 중에는 金氏와 崔氏가 가장 많았는데 거의가 六頭品 出身이었다. 한편 이들 六頭品들은 在唐時節에 新羅 求法僧들과 交流를 가졌으며 특히, 禪宗과의 관계를 가졌는데 聖住寺의 朗慧和尚이 바로 六頭品 出身이었다. 그러나 新羅의 執權 貴族들은 唐의 文物을 體得한 當代의 최고 지식층인 이들 六頭品 계열의 留學生들에게 門戶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주로 天文, 技術 등의 雜職에 이용하였고 外交使節이나 말단의 外職에 임명했기 때문에 反社會的이고 反新羅的인 批判勢力이 되었던 것이다.⁷⁴⁾

社會・經濟적으로는 王位爭奪戰의 展開와 貴族間의 마찰로 王權이 더욱 약해지고 中央統制力이 줄어들자 地方의 豪族 및 寺院 세력을 中心으로 한 海商, 軍鎮勢力 및 草賊이 跋扈하였고 가혹한 賦稅에 반발하는 農民 蜂起가 이어졌다. 특히, 各處의 豪族들은 城主나 將軍 혹은 심지어 王으로 칭하고 各處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農民을 지배하며 地方의 行政과 經濟를 전단하였다.⁷⁵⁾ 이들 豪族들은 광대한 農莊을 비롯한 물질적 기반과 私兵이란 軍士的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地位를 정당화시킬 精神的 歸依處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 후원자를 中央王室과 敎宗을 대신할 禪宗에서 찾아서 이들과도 관계를 가졌다.

思想的인 면에서도 변화가 초래되었으니, 中央王權과 결탁된 五敎(敎宗)가 權威를 잃게 됨으로써 禪宗이 擡頭되었다. 新羅中代의 華嚴敎學, 唯識學, 戒律學, 淨土敎學, 天台敎學 등 敎學佛敎는 王室과 貴族 中心으로 盛行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王室佛敎・貴族佛敎로서의 華嚴은 초월적인 敎義의 전개에 따라 일반서민과 遊離度가 심해지고 나아가 공허한 學解의 煩鎖에 빠져들게 되었다. 下代의 혼란기에 접어들자 華嚴은 社會的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華嚴으로 대표되던 敎學佛敎 時代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敎學佛敎를 그 素地 기반부터 뒤흔들어 놓으면서 등장한 것이 ‘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부르짖고 나온 禪宗이었다. 禪宗은 政治・社會의 으로는 武烈王의 直系孫이 집권하게 되고 王室의 專制權이 무너지고 난 뒤 六頭品族이 새로 대두되는 憲德王과 興德王에 이르러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新機運에서 馬祖道一의 高弟 西堂 智藏으로부터 南宗禪의 心印을 얻어 귀국한 道義와 洪陟이 나오면서 그후 계속 入唐僧들이 귀국하여 소위 禪宗九山派를 成立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禪宗九山派의 創始者들은 非眞骨인 六頭品 以下の 身分이었으며 社會的 기반 또한 王室이나 中央貴族이 아닌 地方勢力이었다. 이러한 眞骨族의 沒落者나 六頭品 以下の 출신자들이 禪宗의 僧侶가 되어 같은 신분의 지방세력을 그 社會的 基盤으로 하면서 막대한 田莊과 田丁을 소유하고 高利貸業까지 행함으로써 各處에서 커다란 地方寺院의 莊園을 형성하게 되었다.⁷⁶⁾

74) 申澄植, “宿衛學生考”(歷史敎育 11·12, 1969).

75)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韓國史研究 제23집, 1979).

尹熙旭, “新羅下代의 城主將軍”(韓國史研究 제39집, 1982) 참조.

76) 崔柄憲, “禪宗九山の 成立과 下代佛敎”(韓國史研究 제7집, 1972).

禪宗의 佛教寺院이 거대한 物力과 人力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豪族들은 자기세력 기반내에 위치한 佛教勢力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禪宗의 입장에서 豪族들의 보호와 협조없이 는 그 세력을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相補的 입장에서 밀착되었던 것이다. 더욱 兩者의 신분이 거의 眞骨에서 몰락한 六頭品 계열이기에 신분적 결속은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었다. 특히, 將軍을 칭하면서 자기세력을 확장하는 武士的 性格은 복잡한 戒律과 教理를 강조한 教宗보다는 修心과 直觀爲主의 實踐哲學을 내세운 禪宗과 결탁하는 것은 당연하였고, 또한 禪師들의 정신적 지원을 얻음으로써 실력자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⁷⁷⁾

이와 같이 實貢科 出身 宿衛學生과 禪宗과 豪族들 사이에는 相互 結束과 協力을 다져왔는데, 崔致遠이 四山碑銘을 撰述한 動機도 바로 이런 關係에서 찾을 수 있다.

僧侶의 碑로서 제일 오래된 것은 阿道碑⁷⁸⁾라 할 수 있으나 碑가 現存하지 않고 建立年代도 確實하지 않기 때문에 現傳하는 碑를 中心으로 볼 때 僧侶들의 碑가 일반적으로 널리 세워지게 된 것은 9세기부터인 것 같다. 800~808년에 高仙寺誓幢和尚碑가 세워졌고 813년에는 斷俗寺神行禪師碑가, 844년에는 興法寺廉巨和尚碑가, 872년에는 大安寺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가, 884년에는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가, 886년에는 沙林寺弘覺禪師碑가 세워졌는데⁷⁹⁾ 이 碑들은 모두 四山碑銘보다 앞서 세워진 것들이다. 이처럼 9세기 以後 일반화된 僧侶들의 碑는 거의가 禪師의 塔碑였으니⁸⁰⁾ 이는 각처의 禪門들이 그들의 勢力을 擴張하고 既存의 地位를 確保하기 위해 豪族의 절대적인 支援을 받아 高僧들의 碑를 다투어 建立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부담은 寺院 자체의 財力에 의하거나 豪族들의 喜捨로 충당함으로써 王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王室에서는 豪族들과 결탁하는 禪門을 懷柔하기 위해 禪師들의 碑文을 王命撰의 形式을 취하도록 했던 것이다. 崔致遠이 四山碑銘을 奉敎撰한 것도 이런 視角에서 理解해야 하겠다. 羅末麗初 禪師들의 碑銘은 崔致遠을 비롯하여 崔仁浚, 崔慎之, 朴仁範, 崔光胤 등 實貢科出身 宿衛學生들에 의해 대부분 撰述되었는데, 이는 이들의 文名도 文名이려니와 當代 엘리트들과의 紐帶強化를 통한 세력의 확장을 꾀한 禪門들의 意圖적인 努力의 結果였다고 할 수 있다. 實貢科 出身인 이들 엘리트들도 禪僧들과 交友關係가 있었을 뿐 아니라 眞骨에 挑戰하고 反撥하는 共同意識과 紐帶感에 의해 禪門의 요구에 積極 呼應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崔致遠은 이러한 當時의 狀況과 與件에 의하여 四山碑銘을 짓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다음으로 四山碑銘의 撰述過程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四山碑의 建立年代를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77) 申澄植, 新羅史(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p.235--36 참조.

78) 三國遺事 卷3, 興法 第三 阿道基羅條 참조.

79) 許興植, 韓國金石遺文(亞細亞文化社, 1984) 古代篇 참조.

80) 孤雲은 智證大師碑銘에서 “況復國重佛書 家藏僧史 法侶相望 碑碑最多”라 지적하였다.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新羅 眞聖女王 元年 丁未(887 A.D.)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新羅 眞聖女王 四年 庚戌(890 A.D.)

初月山大崇福寺碑……新羅 眞聖女王 十年 丙辰(896 A.D.)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新羅 景明王 8年 甲申(924 A.D.)

이 碑의 建立年代와 碑銘의 撰述年代는 一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四碑의 撰述年代와 碑建立과의 關係 및 過程을 推察해 보기로 한다.

眞鑑禪師碑는 羅末 名僧 慧昭의 塔碑인데, 慧昭는 哀莊王 5年(804)에 入唐, 興德王 5年(830) 歸國하여 歷代王들의 推仰을 받다가 文聖王 12年(850)에 入寂하였다. 그는 玉泉寺(雙谿寺)에 六祖 慧能의 影堂을 세우고 철저히 禪을 내세워 실컷 함으로써 慧能을 연상케 했으나 독립된 禪派를 세우지는 못했는데, 高麗祖에 와서 曦陽山派의 祖師로 追尊된 高僧이었다.⁸¹⁾ 憲康王은 禪師의 諡號를 ‘眞鑑禪師’라 하고 塔號를 ‘大空靈塔’이라 했으며, 886年 8月 定康王이 即位하여 崔致遠에게 碑銘을 짓게 하였다.

今上이 이어 즉위하니……臣에게 命해 이르기를 「禪師는 行蹟으로 나타났고 너는 글로써 出身했으니 마땅히 銘을 지어라」하였다. 致遠이 손을 들어 절한 후 「네네」하고 대답했다.⁸²⁾

朝鮮朝 英祖 元年(1725)에 木板에 移刻된 이 碑의 碑文에는 “光啓三年七月日建”이라고 建立年代를 밝히고 있는데, 定康王은 即位 2年 5月부터 병들어 7月 5일에 돌아갔으므로 碑의 建立年代는 眞聖女王 元年 丁未(887)가 옳다. 大東金石書에도 “唐僖宗光啓三年丁未年 新羅眞聖女王元年也”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碑銘의 撰述은, 崔致遠이 定康王으로부터 銘을 지어라는 下命을 即位 元年 末頃に 받아서(즉위가 8월 이므로) 定康王 2年에 完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碑銘에 官職表示를 “前西國 都統巡官侍御史 內供奉 賜紫金魚袋”라 했는데, 이때 孤雲은 실제 太山郡 太守로 있었지만 자신은 현직 지방 관직보다는 紫金魚袋까지 받은 中國官職을 더 榮光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朗慧和尚碑는 武烈王의 8世孫인 無染(金仁問의 後孫인 範淸의 아들)의 塔碑인데, 無染은 哀莊王 2年(801)에 出生하여 일찍이 入唐, 文聖王 7年(845)에 歸國하여 聖住山派의 開山祖가 되었고 眞聖王 2年(888)에 入寂한 高僧이었다. 王은 곧 ‘大朗慧’란 諡號를 내리고 塔號를 ‘白月葆光’이라 하였으며 崔致遠을 불러 銘을 짓게 하였다.⁸³⁾ 無染和尚의 碑는 이미 二基가 있었기 때문에 孤雲은 二重을 피하려고 하였다. 즉 金立之가 撰한 ‘聖住寺碑’에는 入唐 및 歸國과정, 戒行의 稟賦와 禪定에 超悟한 因緣, 公卿과 守宰들의 歸仰하는 마음, 法堂과 影堂의 開創事實 등이 자세히 쓰여져 있고, 憲康大王이 친히 撰述한 ‘深妙寺碑’에는 禪師의 德化와 威力을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⁸⁴⁾ 上足 苾芻가

81) 靜眞大師圓悟塔碑銘 참조.

82) “今上繼興……申命下臣曰 師以行顯 汝以文進 宜爲銘 致遠拜手曰 唯唯”(眞鑑禪師大空塔碑銘).

83) “旋命王孫夏官二卿禹珪 召桂苑行人侍御史崔致遠 至蓬萊宮 因得竝琪樹上瑤墀 踞瑛命珠箔外 上曰……若宜銘國師以報之”(朗慧和尚碑銘).

84) “見大師 西遊東反之歲年 稟戒悟禪之因緣 公卿守宰之歸仰 像殿影堂之開創 故翰林金立之所撰聖住寺碑 叙之詳矣 爲佛爲孫之德化 爲君爲師之聲價 鎮俗降魔之威力 鵬鵬鶴歸之動息 贈太傅獻康大王親製深妙寺碑 錄之備矣”(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

大作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으나 孤雲은 明白한 重要 事蹟만을 쓰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大作이 되고 말았다.

이 朗慧和尚碑는 碑銘에 禪師의 入寂事 記錄에 이어 “越二年攻石卦層塚”이라 했으므로 眞聖女王 4年(890)에 建立된 것으로 推定되는데 朗慧가 眞聖女王 2年(888) 11月 22日 入寂했으므로 王이 門人들의 奏請을 받아 崔致遠에게 銘의 撰述을 下敎한 것은 眞聖女王 3年(889)쯤 된 듯하니, 孤雲은 이 碑銘을 眞聖女王 3年(889)이나 4年(890)에 지은 것 같다.

이 碑에서도 그의 官職을 “淮南入本國 送國信詔書等使 前東面都統巡官 承務侍郎侍御史 內供奉 賜紫金魚袋”라 했고, 本文中에서도 “桂苑行人侍御史”라고 하여 唐의 官職을 쓰고 있는데, 이때 孤雲은 틀림없이 太山郡太守나 富城郡太守로 在宦中이었을 것인데도 新羅의 官職名을 쓰지 않은 것은 現職에 대한 不滿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한편으로 역시 唐職을 자랑스럽게 여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初月山大崇福寺碑는 鵠寺의 유래와 移建, 改名한 崇福寺의 建立과정을 밝힌 것이다. 원래 鵠寺는 元聖王母인 昭文王后의 외삼촌이고 王妃인 肅貞王后(遺事에는 淑貞夫人)의 外祖父되는 金元郎이 세운 절인데 元聖王의 因山을 風水地理說에 의하여 이 절에 經營하고 절을 현재의 月城郡 外東面 末方里의 崇福寺址로 옮겼던 것이다. 景文王이 즉위한 후, 이 절을 改建하였고 憲康王은 寺名을 大崇福으로 고치고 崔致遠에게 碑銘을 짓도록 命했었다.

孤雲이 碑銘의 撰述을 下敎받은 것은 慶曆 丙午年(886) 봄,⁸⁵⁾ 즉 憲康王 12年이요 定康王 元年 봄이었다. 그런데, 憲康王은 886年 七月에 돌아갔으므로 이 ‘丙午 봄’은 ‘憲康王 12년 봄’이었다. 孤雲은 碑銘의 撰述에 곧 착수하지 못하고 定康王代(1年)를 지나 眞聖女王이 즉위하고 나서 곧 짓게 되었다. 碑銘中에 “높이 月姊妹에 의해 길이 동해에 비추는 광채가 발했다. (高憑月姊妹 永流東海之光)”거나 “꽃다운 坤德을 채득하였고 아름다운 天倫을 제승하였다. (體英坤德 續懿天倫)”는 칭송이 있는 것을 볼 때, 碑銘의 찬술 시기는 眞聖女王 即位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慶州博物館에 所藏된 崇福寺碑片에 「尊謚惠成大王」이라는 文句⁸⁶⁾가 보이는데, 惠成大王은 魏弘의 謚號이므로 碑銘의 찬술은 魏弘이 死去한 眞聖女王 2年(888) 以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니⁸⁷⁾ 결국 崇福寺碑銘은 眞聖女王 2~3년에 지어진 것 같다.

智證大師碑는 曦陽山派의 開山祖가 된 道憲의 塔碑인데, 道憲은 憲德王 16年(824)에 出生하여 入唐하지 않고 四祖 道信의 法統과 神秀의 北宗禪을 아울러 이은 慧隱으로부터 禪風을 이어받아 曦陽禪門을 開創하였다. 憲康王 8年(882)에 入寂하자 王은 謚號를

85) “慶曆景午(即丙午也 丙字高宗之諱 故改爲景)年春 願謂下臣曰…… 名一稱而上下皆得 爾宜諱銘”(大崇福寺碑銘).

86) 黃壽永,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6), p. 78.

87) 裴淵亨, “崔致遠의 〈四山碑銘〉의 文學的 考究”(東岳漢文學論集 第1輯, 1983).

‘智證大師’, 塔號를 ‘寂照’라 내리고 崔致遠으로 하여금 碑銘을 짓게 하였다.⁸⁸⁾ “深喜東還”이라 한 것을 보면 王이 碑銘의 찬술을 下敎한 것은 孤雲이 歸國했던 憲康王 11年(885)인것 같다. 孤雲은 이듬해 憲康王이 승하하게 되어 이 碑銘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門人 爽英의 독촉을 받기도 하는 등 상당히 오랫동안 遲滯하여 眞聖女王 7年(893)에 가서야 完成한 것 같다.

박야호로 제주를 부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憲康王이 승하하심을 만나게 되었다.... 때를 탄식한 즉 이슬이 지나가고 서리가 오니 문득 근심에 귀밀이 훌쩍해졌으며 道를 달한 즉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우니 겨우 뱃땀하여진 붓털을 직실 뿐이었다. 장차 汙漫한 놀음에 화합하려고 비로소 嵯峨의 아름다운 자취를 서술한다. 門人 爽英이 와서 글을 재촉하였다.⁸⁹⁾

그런데, 碑의 建立은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龍德四年歲次甲申六月 日竟建”이라는 碑陰記 後尾의 記錄으로 볼 때 景明王 8年(924)에 이루어졌다. 이때 孤雲이 生存했다면 69세일 것이나 碑銘의 官職 表示로 볼 때, 이 碑는 孤雲 死後에 建立된 것 같다. 孤雲은 碑文의 本文中에서 入唐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柱下史에 등용되어 文名을 날리고 詔書를 받들고 錦衣還國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서도 碑銘 題下에 절대 밝히지 않던 新羅官職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孤雲의 死後에 碑가 세워지게 되자 官職만을 當時의 입장에서 고친 것으로 보인다.⁹⁰⁾

그리고, 이 碑銘은 芬皇寺 僧 慧江이 83세 때 글씨를 쓰고 글자를 새겼다는 점이 특이하다.

以上에서 살펴본 撰述過程을 종합해 보면 孤雲은 眞鑑禪師大空塔碑銘, 大崇福寺碑銘, 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 智證大師寂照塔碑銘의 차례로 四山碑銘을 지은 것 같다.

그런데, 四山碑銘의 銘文이 실려 전하는 資料로는 朗慧和尚碑 木版覆刻本(奎章閣本)과 眞鑑禪師碑 木版覆刻本(寶蓮閣印行), 孤雲先生文集 및 金石文集에 실린 것 등이 있으나 그 밖에는 거의가 筆寫本 註釋書이다. 光海君때 鐵面老人(法名 海岸; 1567~?)이란 분이 제일 처음 四山碑銘을 註釋하여 僧侶들의 教材로 삼은 이후, 蒙菴이 1783년에 註釋本을 내었다. 그리고 有一(1720~1799)의 註釋本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蒙菴本과 같기 때문에 有一이 바로 蒙菴인 것 같다. 또한 覺岸(1820~1890)이 註釋한 「四山碑銘」이 있고 洪景模의 註釋本이 있었다 하며(奎章閣本 「文昌集」이 洪本인 듯함) 최근에는 石顥 朴漢永이 「精校 四山碑銘註解」란 精註本을 만들었다. 현재는 이러한 註釋書들이 「文昌集」(奎章閣本), 「四碣」(高大圖書館本), 「桂苑遺香」(崔完洙所藏本, 서울大文理大 國史研究室 刊), 「四山碑銘」(東國大圖書館本), 「海雲碑銘」(成均館大圖書館本), 「孤雲集」(東國大圖書

88) “上命信臣濟愼陶竹楊 授門人狀 錫手敎曰 縷褐東師 始悲西化 繡衣西使 深喜東還 不朽之爲 有緣而至 無悋外孫之作 將尉大師之德”(智證大師寂照塔碑銘).

89) “方思運斧 遽值號弓…… 嘆時則露往霜來遽凋愁鬢 談道則天高地厚 僅覓頑毫 將講汙漫之遊 始述嵯峨之美 有門人爽英 來趣受辛”(智證大師寂照塔碑銘).

90) “入朝賀正 兼延奉 皇華等使 朝清大夫 前守兵部侍郎 充瑞書院學士 賜紫金魚袋”(智證大師寂照塔碑銘).

館本) 등의 標題로 傳해지고 있다.⁹¹⁾

本稿에서는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에서 刊行한 崔文昌侯全集을 主된 텍스트로 삼았다.

Ⅲ. 四山碑銘의 保存實態

1.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이 碑는 羅末의 高僧 眞鑑禪師 慧昭(774~850)의 功德과 法力을 仰慕하여 세운 것으로 孤雲 崔致遠이 碑銘을 짓고 글씨도 직접 쓴 有名한 碑이다. 현재 慶尙南道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에 있는 雙谿寺 大雄殿 바로 앞에 서 있는데, 崔致遠의 四山碑의 하나로서 國寶 제47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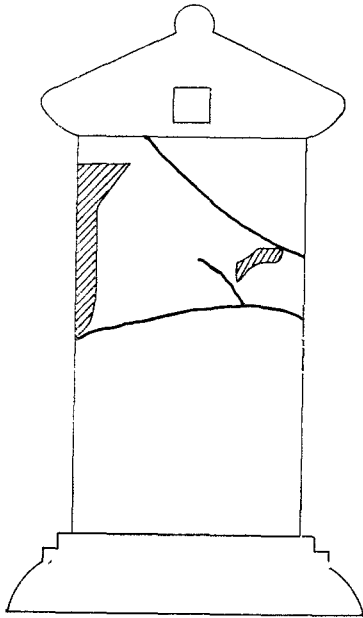
지난 7월 20일에 調査해 본 結果, 碑身에 損傷이 컸으며 龜裂이 甚하고 글자가 磨滅된 부분이 많아 判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6.25때 크게 損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꺼운 鐵板을 附着하여 支撐하고 있으나 잘 保存하지 않는다면 倒壞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碑身의 上部 右端 부분이 깨어져 나갔으며 碑身의 中間部分이 갈라져 있을 뿐 아니라 碑의 右上部에서 左側 中上部로 이어지는 左角上部가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갈라진 碑를 鐵板 別柱를 세워 겨우 支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圖 1〉 및 〈사진 1〉 참조)

龜趺와 螭首는 그런대로 保存되어 있으나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 彫刻된 무늬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龜趺의 龜甲에는 二重 六角形의 龜甲紋이 큼직하면서도 簡潔하게 淺刻되어 있고 꼬리는 땅으로 드리우고 있으며 龜頭는 짧고 幻想的인 怪異한 動物의 머리로 表現하고 있다. 龜趺의 中央에는 높은 碑座가 있는데 四面에는 雲紋이 새겨져 있고 그 上面에 구멍을 뚫어 碑身을 세워 놓고 있다. 螭首는 三角形의 兩側을 碑身쪽으로 비스듬히 자른 모습인데 四面에는 爭珠하는 龍의 모습이 陽刻되어 있고 앞면 中央에는 깊이 판 題額이 마련되어 있다. 이 題額에는 ‘歙海東故眞鑑禪師碑’라는 崔致遠 親筆의 篆字가 새겨져 있으나 이끼와 먼지가 끼어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그리고 螭首의 頂上에는 仰蓮위에 寶珠를 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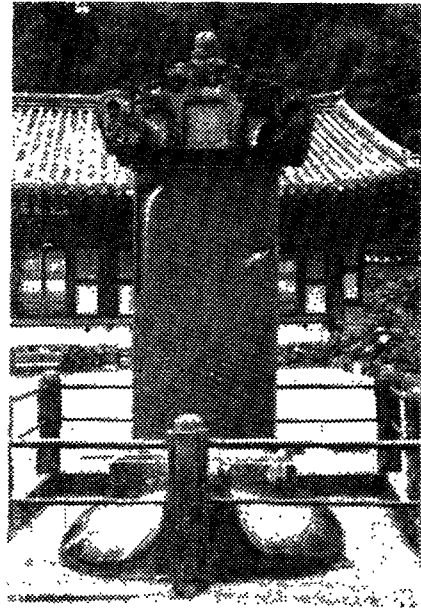
崔致遠의 撰書로 된 碑文은 字徑 2.3cm의 楷書인데, 총 28行이고 每行 70字 정도였다. 碑題와 撰者의 官職等이 쓰인 첫 부분과 建立年代를 밝힌 끝부분이 磨損되어 判讀이 不明했다.

그런데, 이 碑의 총 높이는 3.63m이고 碑身의 높이는 2.02m, 碑幅은 1m이다. 그리고 龜趺와 螭首는 花岡石이고 碑身은 黑大理石으로 되어있다. 崔致遠이 쓴 四山碑銘 中에

91)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續篇」 “第十四 金石”項과 許興植의 「鳳岩寺 智證大師碑」草稿本 등 참조.



〈圖 1〉 眞鑑禪師碑의 破損 및 龜裂상태
(빗금은 파손된 부분을, 검은 선은
갈라진 선을 표시한 것이다)



〈사진 1〉 眞鑑禪師碑의 現存狀態

서 唯一하게 孤雲이 직접 碑文의 글씨와 題額의 篆字까지 쓴 이 眞鑑禪師碑가 1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정도나마 傳하는 것이 큰 多幸이라 생각되나 하찮은 遺物은 保存에 열을 올리면서 이런 엄청난 國寶를 그 혼한 碑閣하나 세우지 아니하고 放置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眞鑑禪師의 法諱는 慧昭이고 俗姓은 崔氏이다. 惠恭王 10年(774)에 出生하여 곧 父母를 여의고 哀莊王 5年 入唐하여 神鑑大師 밑에서 중이 되어 憲康王 2年(810) 崇山 少林寺에서 具足戒를 받고 終南山에 들어가 3年間 道를 닦다가 興德王 5年에 歸國, 尚州 長栢寺에서 禪을 가르쳤다. 다시 智異山 花開谷에 들어가 三法和尚의 옛 절터에 玉泉寺를 짓고 禪을 닦다가 文聖王 八年(850)에 示寂하니 俗壽는 七十七이고 法臘은 四十一이었다. 慧昭는 梵唄에 뛰어나 노래로써 大衆을 敎化했다고 한다. 원래 王으로부터 慧昭라는 號을 받았으나 後에 昭聖王의 諱를 避하여 ‘昭’를 ‘昭’로 고쳐 慧昭라 했었다. 謚號는 眞鑑이고 塔號는 大空靈塔이었으니, 이 碑는 大空靈塔의 塔碑이다. 이 절은 원래 玉泉寺라 했으나 定康王때 額을 내려 雙谿寺로 고쳤던 것이다.

그리고, 崔致遠이 일찍이 雙谿寺에서 讀書했었다는 傳說이 있으며 이 절의 동편 한 돌에는 ‘雙谿’, 서편의 돌에는 ‘石門’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崔致遠의 글씨라 전한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碑의 建立年代는 眞聖女王 元年 丁未(887)이니, 禪師 遷化後 37年만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이 眞鑑禪師碑에 대해 朝鮮 英祖 乙巳(1725)에 移

刻된 木版碑本の 跋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⁹²⁾

是碑吾東之寶 而其之也今已八百三十九年矣 石爛字缺 不可讀之 不勝嘆乎 遂爲壽本 以永其傳
崇禎紀元之九十八年乙巳六月 日 大謚領事 廣先刻字

이 글을 통하여 벌써 1725년에도 碑石이 磨損되고 글자가 缺落되어 碑文의 判讀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이 碑는 聖住山門의 開山祖인 無染大師(801~888)의 墓塔碑로서 現在 忠淸南道 保寧郡 聖住面 聖住里에 있는 聖住寺址에 서 있는데 國寶 제8호이다.

聖住寺는 원래 百濟의 獻王太子인 法王에 의해 開創된 烏舍寺(一名 烏會寺)이었는데, 新羅 文聖王代에 朗慧和尚이 重創하자 王은 寺名을 聖住寺로 바꾸었던 것이다.

聖住禪院者 本隋陽帝大業十二年乙亥 百濟國二十八世 惠王子法王所建烏舍寺 戰勝爲冤魂願昇佛界之願刹也⁹³⁾

文聖大王 聆其運爲 莫非神王化 甚怨之 飛手教優勞 且多 大師苔山相之四言 有緣則住 四字也 易寺榜爲 聖住 舊名烏舍寺也 仍編錄大興輪寺 大師酬使子曰 寺以聖住爲名.⁹⁴⁾

朗慧는 唐에서 歸國한 後, 王子 昕과 만나 그의 주선으로 그때 臨海公 金仁問의 受封之所로 傳하던 절을 聖住寺로 重創하여 眞聖女王 2년에 入寂할 때까지 40年間 住持하던 深光禪師, 大鏡禪師 등 2000餘名 門人을 배출시켰다.⁹⁵⁾ 그 후 聖住寺는 수많은 弟子와 法孫에 의해 高麗를 거쳐 朝鮮때까지 教派나 宗風의 변천없이 禪宗 九山門의 하나로 계속 存續하던 名刹이었다.⁹⁶⁾ 그러나, 이 절은 住民들의 증언과 같이 壬辰倭亂때 燒失된 것 같다.

92) 葛城末治, 朝鮮金石攷(亞細亞文化社, 1979), p. 259.

93) 崇巖山聖住寺事蹟 筆寫本;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文化財 第4號) 附錄 및 佛教美術 2호(東國大 博物館 發行)“聖住寺 發掘調査特輯” 참조.

94) 覺岸註, 四山碑銘, 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并序, 22—23面.

石翁註, 桂苑遺香, 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并序, 127—28面.

文昌集(서울대 奎章閣藏) p. 98.

95) “門弟子名可名者 僅二千人”(朗慧和尚碑銘)

96) 참고로 禪宗 九山門의 山名과 寺名, 祖師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李殷昌: 保寧聖住寺址 調査報告 참고)

九山	寺名	祖師
迦智山(光州)……	寶林寺……	道義(憲德王時)
實相山(南原)……	實相寺……	洪陟(興德王時)
桐裡山(谷城)……	大安寺……	惠哲(神武王時)
闍崛山(江陵)……	崛山寺……	梵日(文聖王時)
鳳林山(昌原)……	鳳林寺……	玄昱(文聖王時)
獅子山(寧越)……	興寧寺……	道允(文聖王時)
曠陽山(閔慶)……	鳳巖寺……	智誥(景文王時)
聖住山(保寧)……	聖住寺……	無染(文聖王時)
須彌山(海州)……	廣照寺……	利嚴(高麗太祖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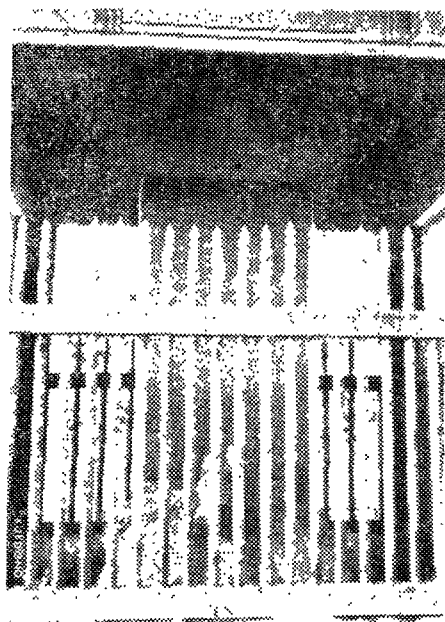
지난 5월 6일 이 朗慧和尚碑의 保存實態를 調査해 보니 眞鑑禪師碑보다는 잘 보존되어 있었으나 管理는 소홀한 편이었다. 이 碑는 碑身, 龜趺, 螭首 등이 具存되어 있는 羅代碑石 中 最大의 傑作이었다.

龜趺는 그 下部가 땅속에 埋沒되어 있었으나 1974年 10월에 이 碑를 解體復元하여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데, 龜頭부분이 상당히 破損되어 있다. 그 외 碑身이나 螭首는 잘 保存되어 있다. 龜趺의 등에는 二重六角形 龜甲紋이 뚜렷이 새겨져 있고 高刻突起된 脊椎에는 雲紋이 波形으로 새겨져 있으며 龜尾는 한가운데서 나와 背甲에 S字형으로 붙어 있다. 龜首는 입과 이마 부분이 缺落되었으나 幻想的인 怪獸의 모양이 비교적 細刻되어 있는데, 동리 사람들은 꽤지 머리 모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꽤지 머리로 보는 것은 최치원의 금패지 說話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碑身은 패인 부분이 간혹 있으나 거의 安存한데 四角은 모를 죽었으며 上部 轉角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螭首는 네개 長方形六面體로서 밑에는 仰蓮이 새겨져 있고 碑蓋 전체에 卷雲과 翻龍이 雄偉한 솜씨로 高刻되어 있는데 앞뒤 양면의 윗부분 가운데에는 각 1개씩, 양측면에는 각 2개씩의 螭頭가 怪首形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앞면 中央에는 題額이 있으나 글자는 磨損되어 알아볼 수 없다. (<사진 2>참조)

碑의 규모는 총 높이가 4.55m, 碑身の 높이는 2.52m, 碑幅은 1.56m, 碑의 두께는 42cm 이고 龜趺 등에 마련된 二重의 座台는 높이 20cm, 가로폭 160cm, 前後幅 64cm 이다. 또, 龜趺의 基壇石은 가로폭이 2.15m, 전후폭이 2.65m로 되어 있다.



〈사진 2〉 朗慧和尚碑의 現存狀態

그리고, 龜趺와 螭首는 花岡石으로 되어 있고 碑身은 黑大理石으로 되어 있으며 글씨는 字徑 1.5cm의 楷書인데 崔致遠의 從弟인 崔仁浼이 쓴 것이다. 글자는 거의 잘 보였으나 “崔致遠奉敎撰”중에서 “敎撰”이란 글자는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멸되었는데, 이런 곳이 간혹 있었다.

한편, 이 碑는 朗慧和尚의 塔碑인 만큼 그 基塔이 있어야 하겠는데, 종래 현재의 聖住寺址에 서 있는 三層石塔 三基 中 어느 하나가 朗慧和尚의 基塔일 것으로 推定한 바⁹⁷⁾도 있으나 1968年 10月 東國大學校 博物館의 聖住寺址 第一次 調査에서 白月菴光塔의 部材가 寺址西麓에서 發掘되었다. 이 報告에 의하면 崇巖山 聖住寺事蹟記에 “朗慧和尚 97) 李殷昌, “保寧聖住寺址 調査報告”(亞細亞研究, 10권4호, 1967).

白月葆光塔安在西麓”이라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하던 중 李麟鳳氏 집에서 연자방아로 쓰고 있던 八角浮圖의 部材를 찾게 되었고 이어서 마을 서쪽 산등성이에서 破材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⁹⁸⁾ 이 部材는 1974年 12월에 朗慧碑와 같은 장소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데, 금번 조사결과 朗慧和尚碑閣옆에 蓮花臺石 일부가 굴러 다니고 있어 이것이 朗慧和尚의 白月葆光塔인 八角浮圖의 一部分이라 생각되나 1968年 발굴의 목록에 보이는 屋蓋石, 塔身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確信할 수 없다. 1974年 12월에 이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다른 곳(박물관)으로 옮겼는지 아니면 또 다시 散逸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聖住寺址가 있는 곳은 西南쪽만 트여 있고 다른 3面은 七星峯, 將軍峯, 王子峯 등 山으로 둘러 싸인 盆地인데, 1,000여 평에 달하는 이 寺址가 東西 200m, 南北 142m의 長方形 石築으로 둘러 싸여 寺域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 寺址에는 五層石塔 1基, 三層石塔 3基, 石燈, 石佛立像이 現存하고 있고 中門址, 金堂址 및 餘他 建物址가 남아 있다. 대개의 위치를 살펴 보면, 南石牆의 東隅에서 68m 지점에 門이 있고 여기서 南北으로 一直線上 14.4m 거리에 中門址가 놓여 있으며 이곳에서 10m 거리에 石燈(原地點)과 14m 거리에 五層石塔이 있고, 이 石塔에서 18.8m 거리에 金堂址가 있다. 金堂址(中心)에서 16.8m 거리에 3基의 石塔이 나란히 놓여 있고 이 石塔에서 34.8m 지점에 礎石列이 보이며 그와 나란히 東으로 石佛立像 一軀가 있다. 이 礎石들은 講堂址 礎石으로 보이는데 이 建物址 西쪽으로 礎石列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는 廻廊址 같으며 中門址 좌우 10m 지점에도 각각 礎石列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建物址임을 알 수 있다.⁹⁹⁾ 이를 통해서도 聖住寺의 옛 규모를 짐작하겠으나 聖住寺寺蹟에는,

選法堂五層重閣 三千佛殿九間 海莊殿九間 大雄寶殿五間 定光如來殿五間 內僧堂九間 極樂殿三間 文殊殿三間 觀音殿三間 普賢殿五間 遮眼堂三間 十王殿七間 梅檀林九間 香積殿十間 住室七間 井閣三間 鍾閣東行廊十五間 西行廊十五間 東西南北間各三間 鍾閣二層 中行廊三百間 外行廊五百間 破 基階猶存 水閣七間 破 庫舍五十間 破矣!¹⁰⁰⁾

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三千佛殿等이 있던 大寺刹이었음을 알 수 있다.

東國大 博物館에서 1968年 10月の 第1次 調査와 1974年 11月 第2次 調査를 실시한 결과, 伽藍의 配置가 확인되고 三千佛殿址의 발굴에서 百濟時代의 숫막새 기와 및 토기 파편, 新羅 때의 「千佛當草」銘 기와, 朝鮮時代의 숫막새 기와에 「嘉靖二十七年三月日」「三千佛殿甃瓦改告記」라는 銘文이 새겨진 것을 찾음으로써 이 寺址가 百濟에 창건되어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에 각기 改造되었음을 밝혔다.

筆者도 이번 現地 調査에서 單瓣 八葉蓮花紋으로 瓣中央에 凸線이 있고 中房은 圓形으로 높은 편이며 5顆 蓮子가 있는 百濟時代 蓮花紋瓦當 1點과 「聖住千佛當草」란 銘文의 일부와 魚骨紋이 陽刻으로 새겨져 있는 羅末麗初의 在銘瓦 1點 등 2點의 貴重한 遺

98, 99) 佛教美術 2호(東國大博物館發行) 참조.

100) 註 (93) 참조.

물을 發掘해 왔다. 그리고, 聖住寺址에는 이곳에서 발굴된 破碎된 螭首와 龜趺 및 3個의 碑石片의 조사 결과 朗慧和尚碑外에도 2基의 碑石(소위 「聖住寺逸名碑」)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그 유래와 性質을 알 수 없었는데, 1968年 「崇巖山聖住寺事蹟記」의 발걸음으로 두 碑石中 1基가 朗慧和尚碑銘에 나오는 翰林郎 阿食 金立之가撰한 碑石임이 밝혀지기도 했다.¹⁰¹⁾

3.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이 碑는 智證大師 道憲(825~882)의 塔碑로서 현재 慶尙北道 聞慶郡 加恩邑 院北里 鳳巖寺 金堂 右側에 세워져 있는데 實物 第138號로 지정되어 있다.

鳳巖寺는 近年에 철저히 修道道場化한 禪門으로서 外部人의 出入을 一切 禁하여 寂照塔碑의 調査가 至難했다. 지난 2月 12日 特別히 入山許可를 받고 寂照塔과 碑 및 그 弟子 靜眞大師의 圓悟塔과 그 碑를 調査하고 인근에 있는 崔致遠의 親筆이라 傳하는 글씨를 拓本하였는데, 智證大師의 寂照塔은 龜裂과 缺落이 심했으나 그 管理는 四山碑中 가장 철저하였다.

이 寂照碑는 龜趺와 碑身 및 螭首를 具存하고 있다. 龜趺는 完存한데 龜背에는 三重 六角形 龜甲紋이 연속되어 있고 六角안에도 圓形에 가까운 六角形이 陽刻되어 있는 點이 特異하다. 龜頭는 龍頭形化하였고 龜背의 中央에는 座臺가 다소 높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碑座의 各面에는 飛天像을 刻出했으나 이런 것들은 統一新羅때의 특징인, 要約된 強烈한 造形技法이 末端裝飾化로 移行된 것이라 하겠다.¹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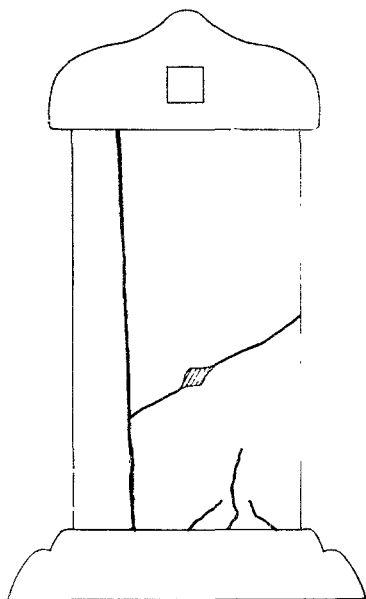
螭首도 完存되어 있는데 양변이 굽어 있으며 仰蓮이 받치고 있다. 그리고, 雲紋속에 爭珠하는 龍의 形像이 寫實的으로 조각되어 있어 다소 後代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螭首의 앞면 中央에는 題額이 있으나 글씨는 보이지 않았다. 碑身은 龜裂과 磨損이 극히 심하여 글씨의 형태만 희미하게 보일 뿐 判讀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앞면에는 碑의 右側 35cm 되는 곳이 위에서 아래로 크게 龜裂되어 있으며 또한 碑의 左側 中間部分에서 右下角쪽으로 右側 龜裂線이 座臺위 35cm 지점에서 만나는 곳까지 1.6m 가량의 길이로 크게 龜裂되어 있고 이 龜裂線의 中間부분에 폭 패인 곳이 있다. 그리고 左側下段도 상당히 龜裂되어 있다.〈圖 2〉 및 〈사진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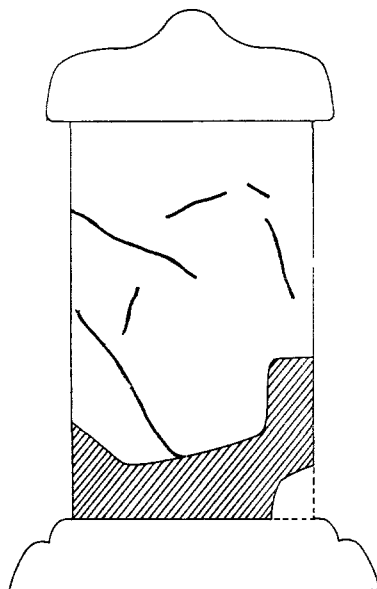
碑의 뒷면은 右下角이 缺落되었고 右側 下段으로부터 높이 130cm×폭 40cm 가량이 剝離되었었으며, 또 下段전체가 높이 43cm 정도로 剝離되었다. 1945年 때까지도 뒷면이 完存했는데 그 후 동리 사람들이 솥들을 만들기 위해 깨어갔다고 하니 無知함이 원망스럽다. 그 외에도 左側中間에서 下段 中央으로, 左側 上段에서 碑 中央으로 龜裂이 나있고 다른 곳도 약간 龜裂되어 있다. 文化財 大觀에 의하면 碑의 앞면 初行은 「大唐新羅國

101)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文化財 第4號).

102) 文化財大觀 154 참조.



〈圖 2〉 智證大師碑 앞면의 破損 및 龜裂상태



〈圖 3〉 智證大師碑 뒷면의 破損 및 龜裂 상태

曦陽山鳳巖寺……」라 시작되며 裏面으로 계속되어 「……芬皇寺釋慧江書并刻字歲八十三……龍德四年歲次六月 日竟建」으로 끝맺는다고 했으나 실제 碑面의 글자가 磨滅되고 粉黃이 끼여 判讀이 거의 不可能했다. 특히 뒷면은 글씨가 있는지 없는지 判別키 어려울 정도로 먼지와 이끼가 끼여 있어 白碑처럼 보였다.(〈圖 3〉 참조)

이 碑의 높이는 2.73m, 碑幅은 1.64m, 碑의 두께는 23cm 이고 碑材는 片磨岩으로 되어 있다. 碑文은 字徑 2.1cm의 古雅하고 淸逸한 行書인데, 이 글씨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芬皇寺의 僧 慧江이 83세에 쓰고 새겼다고 한다. 吳世昌의 槿城書畫徵에는 釋慧江에 대해서 “文聖王 四年 壬戌生”이라 하고 寂照碑에 대해서 “景明王七年甲申建 鳳巖寺智證禪師寂照塔碑 崔致遠撰 釋慧江書並刻 在聞慶曦陽山”이라고 海東金石總目的 記錄을轉載하고 “寂照塔碑 慧江書並刻 時年八十三 字書尚端健”이라는 書譜의 記錄을 실어 놓았다.¹⁰³⁾

한편, 寂照塔碑의 碑閣안에 함께 保存되어 있는 寂照塔은 賣物 第137號로 지정되어 있는데, 崔致遠이 撰述한 四山碑銘 中에서 唯一하게 完存하는 浮圖塔이다. 이 寂照塔은 憲康王 8年(882)에 세운 八角願堂을 기본으로한 浮圖塔으로서 下臺, 中臺, 上臺로 區分되어 基壇 밑에는 四角 地臺石이 있고 윗면 中間에는 연꽃을 조각한 3단의 물딩이 있다. 그리고 下臺石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은 各面에 眼象 一座씩을 두고 그 안에 獅子를 陽刻하였다. 그 위에 甲石을 얹고 上面에는 얇은 물딩위에 雲紋이 둘러 있고 그 위에

103) 三韓金石錄(外)(亞細亞文化社影印, 1981), p. 319.



〈사진 3〉 智證大師碑의 現存狀態



〈사진 4〉 寂照塔의 彫刻 모습

상단이 있으며 구름모양으로 조각된 立柱形이 모퉁이마다 새겨져 있다. 各面에는 날개를 편 迦陵頻伽를 精巧하게 조각하였으며 그 위에 甲石을 얹어 中臺石을 받치고 中臺石 즉 基壇身部에는 各面에 眼像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正面에는 桌上蓮座 위에 사리함을 안치하고 寶蓋, 寶珠, 瓔珞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다른 7面에는 蓮葉 위에서 무릎을 꿇고 供養하거나 혹은 琵琶를 타는 像을 陽刻하고 있는 無比의 傑作品이다. 塔身部の 제일 위쪽 屋石 받침에는 附椽모양의 陽刻 처마를 마련하고 覆鉢 위에 寶輪, 寶蓋, 寶珠 등의 相輪部를 압축한 형태로 처리해 놓았다. 전반적으로 完存한 편이나 八角屋蓋石 中一面이 缺落되고 없다. 이 塔의 높이는 3.41m 이고 地臺石의 幅은 2.28m 이다. (〈사진 4〉참조)

寂照塔碑로부터 동쪽으로 300m 지점, 즉 一柱門 右側に 靜眞大師圓悟塔碑가 서 있는데 이는 智證大師의 弟子인 靜眞大師 兢讓의 塔碑로서 寶物 172號이다. 靜眞大師는 新羅 憲康王 4年(878)에 出生하여 高麗 光宗 7年(856)에 入寂하였으니 諡號를 靜眞이라 하고 塔號를 圓悟라 했다. 이 圓悟塔碑는 龜趺, 碑身, 螭首를 다 갖추고 있는데 모든 樣式이 前記한 智證大師寂照塔碑를 모방한 것으로 寂照塔碑보다 조각 등의 솜씨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 碑도 글자가 磨損되어 判讀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 碑閣도 없이 別판에 放置되어 있어 保存策이 時急하다. 이 碑의 높이는 2.88m, 碑幅은 1.5m 인데, 高麗 光宗 16年(965)에 세워진 듯하다.

그리고, 이 碑에서 400m 쯤 떨어진 뒷산 중턱에는 靜眞大師의 浮圖塔인 圓悟塔이 서 있는데 寶物 17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塔도 智證大師의 寂照塔을 모방한 것으로 八角

願堂形을 취하고 있다. 方形的 地臺石위에 3단의 基壇을 구성하였으나 일부 지대석은 이동이 있다. 이 지대석 上面에 3단의 돌덩이 있어 下臺의 한단 面石을 엮고 各面에는 眼像을 조각했으며 그 안에는 花形이 장식되어 있다. 위에 附椽이 있는 甲石을 엮고 面石 各隅에는 두드러진 圓柱形이 있고 그 表面에는 雲紋과 雙龍紋이 있다. 그 위에 八角 甲石을 덮었으나 平板의이며 이로써 基壇下臺을 구성한 위에 낮은 中石을 엮었는데 各面에는 上下 左右에서 안으로 뻗은 花形이 강조되었고 前面에는 桌上的 舍利함과 寶蓋, 寶傘, 寶珠를 조각한 것이 있을 뿐 다른 7面에는 아무 조각이 없어 단조롭다. 構造와 細部彫刻에 있어서 정교함과 重厚함이 智證大師寂照塔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두 完存한 편이나 屋蓋石 일부가 현재 떨어져 나가고 없다. 고려 光宗 9年(965)에 세워진 이 탑은 花岡石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3m이다.

그리고, 院北里 入口의 시냇가 岩盤에는 최치원 親筆이라 전하는 “夜遊岩”이란 草書가 새겨져 있고 鳳巖寺에서 서북쪽으로 1.5km 떨어진 시냇가 큰 바위에는 “白雲臺”란 草書가 있는데 孤雲의 親筆로 알려져 있다. 또, 마을 어귀에서 300m 쯤 떨어진 길가 논둑 밑에는 “高山流水 明月清風”이란 字徑 80cm 정도의 行書가 孤雲의 친필이라 전해지고 있어 이 글씨들을 拓本해 오기도 했다.

4. 大崇福寺碑片의 發掘과 判讀

大崇福寺碑는 月城郡 外東面 末方里에 서있던 崇福寺의 創建過程을 밝힌 寺蹟碑였다. 지금은 崇福寺는 寺址와 近來에 改築된 東西 三層 雙塔이 남아 있을 뿐이고 碑도 破損되어 龜趺와 碑片 一部가 傳하고 있다. 龜趺는 慶州 博物館에 移置되어 있고 碑身의 碑片들이 日帝時代부터 발굴되기 시작하여 현재 총 12片이 發掘되었다. 그러면 12片의 碑片 발굴 과정과 判讀 問題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그 碑片은 다음과 같다.¹⁰⁴⁾

- (1) 寺乃聖
大王追福」必通」曰
- (2) 人」尉兼持」□」川
- (3) 瓦抽」弑百結酬」異瑕丘□」於鑠水」十齡之」人其
- (4) 尊諡
惠成大王 昭」之曰□」護栢城
- (5) 流□」強忍」餘□
- (6) □援」□□」堂闢隧踊」對農之□」陳耕報德□」毫書慙掣□」手恒鐸等刻
- (7) 垣塹」□□
- (8) 舉僧」俾
- (9) 圓志」珎

104) 古美術同人會, 金石遺文(1963), pp. 28—29.
黃壽永,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6), pp. 78—79,

(10) 唐」神清」誠中

(11) 遠體」□和乙巳」故事^{奉直}

(12) 大王奉

碑片(1)은 末方里 寺址에서 발굴된 것이나 언제 발견된 것인지 未詳이다. 小字 7字와 大字 3字등 10字가 3行으로 되어 있는데 朝鮮金石總覽 上卷에 실린 崇福寺碑文과 대조해 보면 小字註記는 보이지 않고 大 3字는 一致하였다. 그런데, 小字註記는 (奉[□]寺^聖)¹⁰⁵⁾의 일부분인 듯하며 大字「必通」은 「有感入必通自是覺鍾」中の 2字이고 「曰」은 「謂下臣曰禮不云乎」 중의 曰字이다. 이 碑片의 크기는 10×8.5cm, 두께는 0.8cm 인데, 金庠基氏가 所藏하고 있다.

碑片(2)는 大字 6字가 4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행 中「與王人田獻」, 「仍授檢校太尉兼持節充寧海軍使」, 「藻野擣川 觀者如雲」의 일부이다. 이 碑片의 크기는 가로가 12.5 cm인데 1931年 8月 23일에 발견되어 현재 慶州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다.

碑片(3)은 大字 18字가 6行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各行 中「至於撤瓦抽椽」, 「益丘隴餘貳百結酬稻穀合二千苫」, 「壤異瑕丘境連暘谷」, 「增深於鑠水者矣」 「千齡之寶運無虧」 「仁者安人謀政乃導之以道」의 一部이다. 따라서 第3行의 「丘」字 밑의 判讀未詳의 글자는 「境」字임을 알겠고, 「十齡」은 「千齡」으로, 碑片(3)의 마지막 字인「其」는 「謀」字로 判讀해야 옳다. 이 碑片의 크기는 가로가 20cm 로서 1935年 1月 24日 崔南柱氏가 발견한 것인데 현재 慶州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다.

碑片(4)는 크기가 가로 15cm 로서 1938年 7月 30日 入室小學校에서 기증한 것인데 현재 역시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第1行은「太弟相國 尊^憲 惠^成 大王 致齊」중의 小字 註記와 「致」字인 것 같고, 第2行은「大相賀曰貴介弟之是行也」중의 「賀曰貴」라 判讀해야 옳다. 第3行은「威護栢城今也其時」의 一部이다.

碑片(5)는 1935年 9월에 발견된 것으로서 크기는 13×6cm 이며 현재 역시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第1行은「又流聞漢使」중의 「流聞」으로 判讀해야 하고, 第2行은「強忍婉辭之」의 일부이다. 第3行은「筆有餘勇遂敢窺天」中の 「餘勇」으로 判讀해야 한다. 美術同人會編의 「金石遺文」에는 「餘南」으로 보았는데 「餘勇」으로 修正해야 할 것이다.

碑片(6)도 1935年 9월에 발견된 것인데 크기는 16.5×26.4cm 이며 역시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第1行은「救涕援臺」의 일부인 「涕援」으로, 第4行은「伺農之隙成佛之宮」의 일부인 「伺農之隙」으로, 第5行은「陳稱報德隋號興國」의 일부인 「陳稱報德隋」로 判讀해야 한다. 그리고 第2行은「幽堂闢隧踰峇遷隣」의 일부이고 第6行은 相鐫 등의 刻手名이다.

碑片(7)은 1965年 3월에 崇福寺址에서 발견된 것인데 크기는 7.4×9.8cm이고 字徑은 2cm 이다. 역시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第1行은「闢岳麓而培垣壓溪流而斂戶」의

105) 許興植, 앞의 책 p. 243.

일부인 「垣壓」으로 判讀해야 한다.

碑片(8)~(12)는 1966年 4月 16日 黃壽永博士가 경주시의 古物商에서 購入, 발굴한 것인데 확인 결과 東西 三層雙塔 北方의 金堂址 西北角 부근에서 발견한 것이라 한다.¹⁰⁶⁾ 이 5片는 모두 東國大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다.

이 중 碑片(8)은 크기가 7×5cm 인데, 제1行은 「舉僧象於昭玄精署」의 일부이고 제2行은 「將俾小加大」의 일부이다.

碑片(9)는 크기가 7.5×6cm 이고 두께는 1cm 이다. 第一行은 「善繼其志善述其事」의 일부인 「其志」로 판독해야 하고 第2行은 「其故波珍浪金元良」의 일부이다.

碑片(10)은 크기가 6×9.5cm 이고 두께는 1.3cm 이다. 第1行은 「勤修而福不唐損」의 일부인 「唐」이다. 朝鮮金石總覽을 비롯한 모든 金石文資料集에는 「虛」字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碑片에 「唐」字가 分明하게 새겨져 있고 (<拓本 1> 참조) 「唐」字의 뜻이 「황당하다」로도 쓰이기 때문에 뜻이 「虛」字보다 文意에 더 合當하므로 「唐」字로 確定할 수 있다. 既存 金石文資料集들을 修正해야 할 것이다. 第2行은 「神清遠體」의 일부이고 第3行은 「激歸佛之誠中和乙巳年秋」의 일부이다.



<拓本 1> 崇福寺碑片(10)의 모습



<拓本 2> 崇福寺碑片(11)의 모습

碑片(11)은 크기가 8.3×9cm 이고 두께가 0.9cm 이다. 第1行은 바로 위에 보인 「神清遠體」의 일부로서 위의 碑片(10)의 第2行 「神清」에 이어지는 것이다. 第3行은 「一依奉恩故事」의 일부이다. (<拓本 2> 참조) 그러므로 碑片(10)과 (11)은 上下로 兩分된 것이니 붙이면 唐 神清遠 體誠中和乙巳로 判讀된다.

碑片(12)는 註記 小字이기 때문에 金石文資料集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碑片의 크기는 5.5×5cm, 두께는 0.6cm, 字徑은 1cm 이다.

위의 分析을 통해서 崇福寺 碑片의 判讀이 잘못된 것이 많고, 어떤 것은 이 碑片에 의거해 既存 金石文資料集을 修正해야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筆者는 지난 6月 10日 東國大 博物館을 찾아가 崇福寺 碑片의 保存實態를 調査하였다.

106) 黃壽永, “新羅崇福寺碑片”(考古美術 9권 7호, 1966, 7).

이 博物館에 보관된 5片은 진열장에 진열도 되지 못하고 창고에 들어 있어 찾는 데도 時間이 상당히 걸렸다. 다행히 博物館 助敎의 친절한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사진촬영과 乾拓을 할 수 있었다. 陳列場所가 확보되고 세월이 지나면 이 碑片들이 貴重히 진열장에 保管되리라 믿는다. 앞의 〈拓本〉은 筆者가 碑片 調査때 乾拓해 온 것이다.

Ⅶ. 四山碑銘의 內容分析

夏, 殷, 周 三代를 비롯한 古代의 帝王들은 器, 鏡, 鼎, 尊, 彝, 鼓 등의 金石에 銘을 새겨 鑑戒로 삼았는데 글을 새긴 器物을 碑라 하고 새겨진 글을 銘이라 했다. 銘을 차츰 돌에 새기게 되었고 내용은 事蹟을 기록하거나 業績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帝王의 功績을 찬양하거나 宗廟에 세워졌던 碑가 개인 墓地에도 세워지게 되었다. 또한 碑文 짓는 制度가 序와 銘으로 나누어져 序의 部分은 傳記이고 碑의 本文은 銘이 되었다.¹⁰⁷⁾ 그러나 後代로 내려 오면서 序에 해당하는 傳記가 길어지게 되고 찬양하는 銘은 짧은 韻文이 되었다. 따라서 碑文은 ‘碑銘并序’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碑銘은 자연 碑銘并序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四山碑銘도 四山碑銘并序를 가리킨다.

1. 眞鑑禪師碑銘의 構成과 內容

이 碑銘의 原名은 「有唐新羅國故雙谿寺敎誼眞鑑禪師大空塔碑銘并序」인데 이 碑題 다음에 撰者와 書者를 밝히고, 碑의 本文인 序文과 銘을 쓴 다음, 끝에 豎碑 年月과 刻字 名을 써 놓았다.

그러면, 이 碑銘의 本文 構成을 알아 본후, 그 構成의 段階에 따라 內容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眞鑑禪師碑銘은 文義와 敘述方式에 따라 다음과 같이 4段으로 나눌 수 있다.

第1段 序 論

夫道不遠人 人無異國~廣耀五鄉 豈異人哉 禪師是也

第2段 生涯와 功德

禪師法諱慧照 俗姓崔氏~豈非以聲聞度之之化乎

107) 劉勰, 文心雕龍 銘箴 第十一 및 誄碑 第十二 참조.

“昔帝軒刻興兒以弼達 大禹勒筍簋而招諫 成湯盤盂著日新之規 武王戶席題必戒之訓 周公慎言於金人 仲尼革容於欒器 則先聖鑒戒 其來久矣 故銘者名也 觀器必也正名 審用貴乎盛德 蓋臧武仲之論銘也 曰天子令德 諸侯計功 大夫稱伐 夏鑄九牧之金鼎 周勒肅慎之楮矢 令德之事也 呂望銘功於昆吾 仲山鑄績於庸器 計功之義也 魏顆紀勳於景鐘 孔惺表勤於衡鼎 稱伐之類也 若乃飛廉有石槨之錫 靈公有蒿里之諡 銘發幽石 吁可怪矣 趙靈勒跡於晉吾 秦昭刻博於華山 夸誕示後 吁可笑也 詳觀衆例銘義見矣……夫屬銘之體 資乎史才 其序則傳 其文則銘 標序盛德必見清風之華 昭紀鴻懿 必見峻偉之烈 此碑之制也 夫碑實銘器 銘實碑文 因器立名 事光於誄 是以勒石讚勳者 入銘之域 樹碑述亡者 同誄之區焉”

第3段 碑銘의 撰述過程

禪師泥洹 當文聖大王之朝～謹札銘云

第4段 銘 詞

杜口禪那 歸心佛陀～天依拂石 永耀松門

위의 4段 構成은, 形式化하면 第1段은 起詞에 해당하고, 第2段은 承詞, 第3段은 轉詞, 第4段은 結詞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形式論理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內容을 分析하고 理解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文義中心으로 그 構成을 把握하였다.

序論에서는 眞鑑禪師가 中國으로부터 禪道를 傳하여 나라를 빛낸 人物임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禪師가 入唐 修學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歸國傳道의 성과를 隱喻적으로 비추고 禪道 곧 佛教가 儒敎와 더불어 眞理와 道에 이름에 있어서는 同一함을 여러가지 比喻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入唐하여 修學하는 過程의 어려움을 “묵숨은 조각배에 부쳤고 마음은 보배의 고장으로 향했다(命寄剡木 心懸寶洲)”든지 “옥을 캐는 자는 곤륜산의 높음을 꺼리지 아니하고 구슬을 찾고자 하는 자는 용이 잠든 물속의 깊은 곳을 피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猶采玉者不憚崑丘之峻 採珠者不辭麗壑之深)”라 했다. 傳道의 성과를 “지혜의 햇불을 얻어 빛이 오승에 통하고 맛있는 음식을 얻어 육경에 배물렀다(得慧炬則光融五乘 嘉肴則味飫六籍)”고 隱喻法을 써서 表現하고 있다. 그리고, 儒佛이 道에 이르는 바가 같다는 것을 “如來와 周公·孔子가 출발은 비록 다름지라도 돌아가는 바는 한가지다(如來之與周孔 發致雖殊 所歸一揆)”라고 한 慧遠의 說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眞鑑禪師의 宗教觀과 思想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第2段에서는 禪師의 生涯와 功德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禪師의 法諱는 慧照, 俗姓은 崔氏, 아버지는 昌元, 어머니는 顧氏라 하고 先代는 漢族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당시 六頭品 以下들이 계급적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先系를 中國과 연관시키려는 風潮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이 나타나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유리항아리로 징포를 삼았다”고 한 胎夢을 통해 出生의 神異함과 7~8세때 벌써 “잎을 태워서 향을 삼고 꽃을 따서 공양을 삼기도 하고 서쪽을 향해 꿇어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쫓잡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出家의 行과 善根이 깊음을 강조하고 있다. 禪師는 가난하여 생선장수도 하여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다가 入唐, 神監大師로부터 心印과 戒를 받고 동방의 성인이요 黑頭陀라 지목되었으므로 漆道人의 後身이라 했다. 810년에 具足戒를 琉璃壇境에서 얻음으로써 胎夢이 실현되었고 道義와 사방 유람하며 佛道를 증득하다가 終南山에 들어가 萬길 봉우리에 올라가 술세를 따먹기도 하며, 止觀 三年 함곡관에서 眞신을 삼아 布施하기 3年 등의 苦行을 마치고 귀국했더니 興德大王이 친히 마중나왔다고 했다. 尚州 露岳山 長栢寺에 머물다가 호랑이를 타고 花開谷에 이르러 三法和尙의 절터에 걸을 새로 짓게 되었고, 838년에 閔哀王이 특별히 祈願해 줄 것을 請했으나 사양하자 定과 慧가 원만하다고 하여 王은 慧照라 號를 내리고, 黃龍寺로 적을 옮기려 했으나

급히지 않았단다 한다. 奇境인 南嶺의 기슭에 玉泉寺를 지었는데, 曹溪의 玄孫인 禪師는 “만법이 다 공이니 내 가려 한다. 한 마음이 근본이니 너희는 힘써라(萬法皆空 吾將行矣 一心爲本 汝等勉之)”라 하고, 탑을 세우지 말고 銘을 짓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涅槃에 드니 報年이 七十七, 積夏가 四十四였다. 이때 하늘에서 바람과 우뢰가 갑자기 일어나고 흐랑이는 슬피 울부짖고 杉나무와 잣나무는 변하여 시들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紫雲이 하늘에 자욱하고 공중에서 손가락 통기는 소리가 났으니 이는 聖者의 靈感으로 冥冥中 應함이라 하늘과 사람이 함께 哀悼하였다는 것이다. 禪師의 性品은 散하기도 樸하기도 않았으며 말에 꾸밈이 없었고 현 옷과 거칠은 밥을 꺼리지 않았음을 여러가지 事例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禪師는 梵唄를 잘 불러 노래를 통해 중생제도하는 교화를 널리 뱌다고 한다. 一生동안 修禪과 중생제도에만 힘쓴 禪師의 功德을 적절한 비유와 실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第3段에서는 碑銘의 撰述過程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禪師가 入寂하자 文聖大王은 淸淨한 諡號를 내리려 하다가 遺戒를 듣고 그만 두었는데, 12년이 지나 一吉干 등 門人들이 禪師의 높은 功德의 자취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碑세울 것을 奏請했더니 憲康大王이 眞鑑禪師라 追諡하고 塔號를 大空靈塔이라 하여 篆字의 새김을 허락했다고 하였다. 遺訓을 어겼다고 誹謗하는 이가 있자 孤雲은 “이름이 저절로 드러난 것은 定力의 餘報이니 재쳐림 사라지고 번개처럼 끊어지게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때에 해서 名聲을 大千世界에 펼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不近名而名彰 盖定力之餘報 與其灰滅電絕 曷若爲可爲於可爲之時 使聲震大千之界)”하고 反問하며 堅碑하여 禪師의 業績을 드러냄이 옳다고 하였다. 定康王이 즉위하여 玉泉寺라 부르는 절이 근처에 또 하나 더 있으므로 區別코자 雙谿寺란 題號를 내리고 孤雲에게 碑銘의 撰述을 命하자 “몸은 兩役을 겸하고 힘은 五能을 본받으려 한다(敢身從兩役 力效五能)”하여 자신이 儒者면서 佛의 役을 하게 되어 鼯鼠의 다섯가지 能함을 흉내내려 한다고 謙辭하였다. 여기에서도 孤雲은 根本은 儒者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眞鑑禪師碑銘은 定康王때 찬술했음을 시사했다.

第4段은 銘詞로서 結詞의 구실을 하고 있는데, 40句의 四言古詩體로 된 偈頌이다. 앞에서 叙述한 內容을 偈頌으로써 要約하여 表現하였다.

杜口禪那 歸心佛陀
根熟菩薩 弘之靡它
猛探虎窟 遠泛鯨波
去傳秘印 來化斯羅
尋幽選勝 卜築岩磴
水月澄懷 雲泉寄興
山與性寂 谷與梵應
獨境無閤 息緣是證

말 없는 禪으로써 불타에 귀심하여
근숙한 보살이 이 道를 넓혔네.
담 크게도 호굴 더듬어 경파를 넘어가서
秘印을 전해 받아 신라를 교화했네.
빼어난 勝地 찾아 바위등에 절을 짓고
물과 달에 마음두고 뽕 구름에 흥 부쳤네.
산과 性은 적연하고 골에는 온통 범패소리
닿는 곳 막힘없고 機心 끊어 證得이라.

道贊五朝 威催衆妖	도로써 五王돕고 위엄으로 妖鬼놀려
默垂茲蔭 顯拒嘉招	자비음덕 드리워서 임금 부름 들리켰네.
海自飄蕩 山何動搖	바다야 표랑한들 산은 어찌 동요할까?
無思無慮 匪鄣匪雕	무사무려하여 다듬지도 꾸미지도 않네.

이는 銘의 앞부분인데, 偈頌이만큼 表現은 簡明하지만 禪師의 修學과정과 功德을 包括的으로 빚대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銘은 換韻式을 取하고 있는데 특히 八句를 一解로 하는 逐解換韻法을 쓰고 있다. 第1解는 韻字가 那, 它, 他, 波, 羅로서 下平聲 五歌韻, 第2解는 韻字가 勝, 證, 興, 應, 證으로서 去聲 25徑韻, 第3解는 韻字가 朝妖, 招, 搖, 雕로서 下平聲 二蕭韻, 第4解는 韻字가 味, 備, 致, 秀, 墜, 悴로서 去聲 四寘通韻, 第5解는 韻字가 存, 誤, 恩, 根, 門으로서 上平聲 二十三元韻으로 되어 있고, 韻도 平仄을 互用하여 生動感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眞鑑禪師碑銘은 構成 및 그 展開가 아주 論理的이고 적절한 비유와 精確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孤雲의 叡智와 뛰어난 文章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銘詞의 簡明함이 더욱 이 碑銘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後代 碑銘의 典範이 된 듯하다.

2. 朗慧和尚碑銘의 構成과 內容

이 碑銘의 原名은 「有唐新羅國兩朝國師教諡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并序」인데 이 碑題 아래 撰者가 밝혀져 있고 碑의 本文인 序文과 銘이 있으며 끝에 書者名이 쓰여 있다.

그런데, 이 朗慧和尚碑銘의 本文은 다음과 같이 3段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1段 碑銘의 撰述過程

帝唐揃亂以武功～自許窺一斑於班史然於是乎 管述曰

第2段 行蹟과 德化

光盛且實而有暉八紘之質者～扣寂爲銘其詞曰

第3段 銘 詞

可道爲常道如穿艸上露～鷄峰待彌勒 長在東鷄林

위의 3段 構成은 실제로 第1段은 序論의 性格을, 第2段은 本論, 第3段은 結論의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던, 各 段別로 內容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第1段은 朗慧和尚의 入寂事, 諡號 및 塔號를 받게 된 과정, 孤雲이 碑銘을 撰述하게 된 過程을 敘述하고 있다.

大師의 入寂事に 대해서는 眞聖王 2年(888) 11月 22日 未時에 入寂한 후, 3日이 지나도 變치 않고 生時와 같았고 王이 驛使를 시켜 글로 吊喪하고 곡식으로 賻儀했음을 내세워 死後의 神異함과 王의 特別待遇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菩薩戒弟子들로서 武州都督인 蘇判 鎰과 執事侍郎 寬柔와 涇江 都護 咸雄과 全州別駕 英雄등은 門人인 昭顯 釋玄玄 釋慎符 등과 더불어 의논, 贈諡와 銘塔 내려줄

것을 請하자 王은 “故聖住大師는 정말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故聖住大師眞一佛出世)”라 하고 ‘大朗慧’라 追諡하고 ‘白月葆光’이라 塔號를 내리면서 孤雲에게 國師의 銘을 받들어 王恩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孤雲은 적은 재주, 즉 有爲로 한량없는 行實 卽 禪實을 기록하는 것이 마치 “약한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 같고 짧은 줄의 두께박으로 깊은 우물 물을 퍼 내리는 것 같다(弱輶載重 短綆汲深)”고 사양했으나 임금의 간곡한 下敎를 받고 大師의 門弟子들이 바친 行狀을 받아 碑銘의 撰述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孤雲은 碑銘의 撰述에 앞서 口學과 心學과의 관계에 대해 심각히 苦惱했었다.

다시 생각해 보니 曆나라에 들어가 유학하기는 그와 내가 함께 했던마는 스승된 이는 어떤 사람이며 일꾼된 이는 어떤 사람인가? 어찌하여 心學한 이는 높고 口學한 이는 수고로울까? 고로 옛 군자는 배우는 바를 진중히 했었다. 그러나, 心學한 사람은 德을 세웠을 것이고, 口學한 사람은 말을 세웠을 것이니 저 德이란 것도 어찌면 말을 빌려서만 일컬어질 것이고 이 말이란 것도 德에 기대어야 썩지 않을 것이니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心이 능히 옛부터 오늘날에 보여 줄 것이요, 썩지 않는다면 口도 또한 옛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¹⁰⁸⁾

心學하는 사람 즉 修道하여 德行이 높은 禪僧이나, 口學 즉 學問과 知識을 研磨하여 文章이 빼어난 文人은 各自 所重함과 價値를 지니면서 또한 心學과 口學은 相補的 關係에 있다는 結論을 얻고 비로소 碑銘 撰述에 臨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孤雲이 文章家로서의 自貢心이 내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金立之가 撰한 聖住寺 寺蹟碑에 大師의 法堂이나 影堂 開創을 中心으로 한 業績이 자상히 서술되어 있고 憲康大王이 撰한 深妙寺碑에 大師의 德化와 事蹟이 잘 갖추어 기록되어 있으므로¹⁰⁹⁾ 大師 涅槃 때에 나가는 것과 임금이 宰觀波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만 드러내려 했는데, 大師의 上足인 苾芻가 와서 絶妙한 좋은 글월로 써 달라고 재촉하면서 “金立之가 撰한 碑는 세운지가 오래되어 大師의 수십년 남긴 아름다운 업적이 빠져 있고, 太傅王이 지은 비문에는 특별한 예우만 나타냈을 뿐이니…… 마땅히 널리 기록하고 갖추어 말하여 자못 후생이 ‘무섭게’ 여기도록 지어서 비릇을 더듬고 종말까지 미치게 해 달라”¹¹⁰⁾고 부탁을 했으나 生死間의 事蹟中 明白한 것이 많으니 그 중에서 後學에 도움이 될 것만 서술한다고 하여 學者의 양심과 선비 정신을 드러내 주고 있다.

第2段은 大師의 生涯와 德化를 記述한 것으로 碑銘의 本論이 되고 있으니 이를 要約하던 다음과 같다.

大師의 法諱는 無染이니 達摩祖師의 10世孫이고 俗姓은 金氏니 武烈王의 8代孫이다.

108) “復惟之 西學也彼此俱爲之 而爲師者何人 爲役者何人 豈心學者高 口學者勞耶 故古之君子慎所學 抑心學者立德 口學者立言 則彼德也或憑言而可稱 是言也或倚德而不朽 可稱則心能遠示乎來者不朽則口亦無慚乎昔人”(朗慧和尚碑銘).

109) “見大師西逸東返之歲年 稟戒悟禪之因緣 公卿守宰之歸仰 像殿影堂之開創 故翰林郎金立之所撰 聖住寺碑 叙之詳矣 爲佛爲孫之德化 爲君爲師之聲價 鎮俗降魔之威力 鵬顯鶴歸之動息 贈太傅獻康大王親製深妙寺碑 錄之備矣”(朗慧和尚碑銘).

110) “立之碑 立之久矣 尚闕數十年遺美 太傅王神筆所記 蓋顯示殊遇云爾……宜廣記而備言之 殆貽貽可畏 俾原始要終”(朗慧和尚碑銘).

大父는 周川인데 品은 眞實이고 位는 韓祭이요 高祖 曾祖는 出將入相하였으며 父 範淸은 六頭品인 得難으로 만년에 金劄에 종사했다. 母는 華氏인데 꿈에 垂臂天이 蓮꽃을 주는 것을 보고 孕胎하여, 胡道人이 자칭 法藏이라 하면서 十護充胎敎를 주던 13달만에 大師를 낳았다. 大師는 어렸을 때부터 절을 떠나 앓을 때나 함장하거나 가부좌하였고 늘 폐에는 항상 佛像과 佛塔을 그리고 쌓았다. 9세에 入學하게 되어 一覽輒記하니 모두들 海東神童이라 했다. 12세 되던 宣德王 5年(784)에 出家, 五石寺(現 浮石寺)에 들어가 중이 되었는데 佛經의 解說에 정통했다. 처음에 法性禪師를 스승으로 섬기다가 澄大德에게서 華嚴經을 배웠으나 靑出於藍이라 國使의 瑞節入唐 船便과 正朝使인 王子 昕의 배를 이용하여 入唐하였다. 大興城 至相寺에 이르러 雜花에 대해 한 노인이 “멀리 여러 물건을 취하려 하는 것이 네게 있는 부처를 알아내는 것과 어느 것이 나을까? (遠欲取諸物 孰與認而佛)”하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大師는 佛光寺의 如滿과 麻谷寺의 寶徹和尚에게 道를 물었다. 如滿은 “다른 날에 中國이 禪을 잃어 버리게 되면 장차 東夷에게 묻게 될 것(他日中國失禪 將問之東夷耶)”라 했고 寶徹은 “이제 印을 주어 東土의 禪侯로 으뜸가게 하노라(今授印焉 俾冠禪侯于東土)”라 했었다. 肅宗 5年(845)에 皇帝의 命으로 沙汰를 당하여 歸國하자 王子 昕이 山中宰相처럼 되어 있어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昕은 “절 하나가 熊川 坤隅에 있으니 이는 나의 조상 臨海公이 封받은 곳인데, 화재로 金田이 반쯤 재가 되었으므로 大師가 가서 再建해 달라”고 권하므로 太中初年에 나가 이 절을 重建하니 “道는 크게 행하게 되고 절은 크게 번창하였다(道大行 寺大成).” 그러자 文聖大王이 下敎를 내려 위로하고 寺名을 ‘烏舍寺’(또는 烏舍寺)에서 ‘聖住寺’라 바꾸어 大興輪寺에 등록시켰다. 이어 憲安王은 弟子의 禮를 뒀고 士流는 大師門을 모르면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한 번 뵈기만 하면 포악한 者도 善良하게 되었다. 景文王은 항상 大師에게 諮問을 구했으며 大王 13年(872)에는 大師를 궁중으로 모셔 國師로 삼았다. 임금의 물음에 답하다가 궁중으로부터 도망했으나 王의 권유로 深妙寺에 거처하며 補修하여 化城처럼 만들었고, 景文王이 몸이 不便하게 되자 입궐하여 위로한 후에 “能官人”을 당부하고 다시 聖住寺로 들어갔다. 憲康王이 즉위하여 부르매 나아가니 先朝때의 禮보다 더하였다. 定康王이 즉위하여 大師를 두 조정에서 총애하였던 禮遇를 행하려 했으나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양하였다. 大師가 허리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은 王은 國醫를 보내 치료했으나 大師는 “講하기를 힘써라”하고 入寂하였다. 大師의 性品은 공손하면서 진중하여 말에 和氣를 잃지 않았다. “佛祖도 일찌기 진흙을 파서 이긴 일이 있거든 나는 잠깐이라도 편히 앉았겠는가?”하고 식수를 운반하거나 쉼나무를 지고 오는 등 몸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門弟子도 이름을 들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2,000餘名이요, 道場에 자리잡고 있는 이는 僧亮, 普信, 詢父, 僧光 등이고, 諸孫도 번창했다. 生涯와 德化를 叙述하는 데 있어 具體的인 예를 많이 들어 大師가 一生동안 돈독한 佛心으로 나라를 敎化시키고 百姓들로 하여금 內面的인 德을 닦게 한, 五百年만에 나타나는

天出의 應驗으로 昇化시켰다.

第2段의 內容을 通하여 朗慧和尚의 生涯와 禪學은 물론이고 그 時代의 社會相, 禪宗과 王室과의 關係, 禪宗과 六頭品 知識人 특히 實貢科出身 留學生과의 關係를 알 수 있고 나아가 朗慧의 禪思想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第3段은 結論에 해당하는 銘詞이다. 大師의 行蹟과 德化를 稱頌한 五言古詩體로 된 偈頌이다.

是道澹無味	禪道는 담담하여 맛은 없지만
然須強飮食	모름지기 힘써서 마셔야 하네.
他酌不吾醉	남이 마신다고 내 취하지 아니하고
他強不吾飽	남이 먹는다고 내 배 부르지 않네.
誠衆黷心何	경계하되 黷心은 어떻게 하오
糠名復糝利	名利를 糠糝로 알아야 하네.
勸俗飾身何	속인에게 몸가짐을 권하기로는
甲仁復冑義	仁義를 冑로 삼아야 하네.
汲引無棄遺	못사람 인도하여 버리지 않아
其實天人師	진실로 天人의 스승이로세.

이는 銘詞의 後半 一部分으로 大師의 가르침과 德化를 읊은 것인데, 偈頌의 一種이기 때문에 抽象的인 表現으로 되어 있으나 大師의 德化가 높고 큰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이 銘詞는 총 76句로 되어 있는데, 첫 4句는 序詞이고 本詞는 8句씩 一解를 이루고 있다. 各 解의 範圍와 句數, 韻字는 다음과 같다.

序詞：可道爲常道 如穿艸上露(2句) 〈上聲十九皓通韻〉

即佛爲眞佛 如攬水中月(2句) 〈入聲二物通韻〉

第1解：道常得佛眞～綴木浮鯨津(8句) 〈上平聲二十眞韻〉

第2解：觀光堯日下～目鏡燭桃野(8句) 〈上聲二十一馬韻〉

第3解：旣得鳳來儀～岩徑難容錐(8句) 〈上平聲四支韻〉

第4解：我非待三願～雲歸海山暮(8句) 〈去聲七遇韻〉

第5解：來貴乎業龍～至極何異同(8句) 〈上平聲一東通韻〉

第6解：是道澹無味～甲仁復冑義(8句) 〈去聲四寘通韻〉

第7解：汲引無棄遺～今古所共悲(8句) 〈上平聲四支韻〉

第8解：梵石復刊石～猶如今示昔(8句) 〈入聲十一陌通韻〉

第9解：君恩千載深～將在東雞林(8句) 〈下平聲十二侵韻〉

銘詞의 內容을 살펴보면 序詞에서는 道와 佛의 無常性을, 第1解에서는 生長과 入唐過程을, 第2解에서는 修學 및 歸國過程을, 第3解에서는 聖住寺의 重建과 修道를, 第4解에서는 두 임금과 온 나라가 教化에 젖었음을, 第5解에서는 궁중에 3번 왕래했음을, 第6解에서는 大師의 가르침과 德化의 위대함을, 第7解에서는 入寂의 슬픔을, 第8解에서는 碑塔을 세워 行蹟을 기리게 된을 읊어 칭송하고 있으며 第9解에서는 大師의 德化가 新羅

와 함께 영원하길 기원하고 있다.

3. 智證大師碑銘의 構成과 內容

이 碑銘의 原名은 「大唐新羅國故曺陽山鳳巖寺教諭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并序」이고, 碑題 다음 撰者를 밝히고 本文인 碑의 序文과 碑銘을 쓴 후에 끝에 書者, 院主 및 都唯那, 豎碑年月을 밝히고 있다.

이 智證大師碑銘은 文義와 叙述方式에 따라 構成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이 4段으로 나누어진다.

第1段 佛法의 東傳過程과 智證의 禪統

序曰五常分位配勳方者曰仁~畢萬之後於斯驗矣

第2段 六異, 六是 및 入寂

其世緣則王都人~莽而遂窆于曺野 其詞曰

第3段 銘 詞

麟聖依仁乃據德~來向山中看篆刻

第4段 碑銘의 撰述過程(陰記)

太傅王馳醫門疾~庶幾騰日域高譚

그런데, 이 碑文의 構成은 그 순서가 다른 일반 碑文들과 다르다. 대개 일반 碑文들의 構成은 碑文의 銘詞가 제일 뒤에 가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이 碑文에서는 銘詞가 碑銘 撰述過程의 앞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아마 碑銘撰述 當時에는 一般 碑文들처럼 銘詞가 제일 뒤에 있었겠으나 碑石에 세길 때에 碑文이 길기 때문에 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銘詞를 碑의 後面으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여 碑銘의 ‘撰述過程’을 陰記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撰者의 撰述 順序와 다르게 碑文에 收錄되었다고 생각된다. 文集이나 註釋本에는 碑陰記의 豎碑過程을 入寂事 다음에 싣고 銘詞를 마지막에 싣고 있으니 이것이 孤雲이 撰述한 本來의 順序가 아닌가 생각된다. 孤雲이 撰述한 本來의 智證大師碑銘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第1段 佛教의 東傳過程과 智證의 禪統

序曰五常分位配勳方者曰仁~畢萬之後於斯驗矣

第2段 六異와 六是

其世緣則王都人~用捨之是六焉

第3段 入寂과 碑銘의 撰述過程

至冬杪既望之二日~庶幾騰日域高譚 其詞曰

第4段 銘 詞

麟聖依仁乃據德~來向山中看篆刻

이 순서에 따르면 智證大師碑銘도 起, 承, 轉, 結의 4分法을 취한다고 볼 수 있으니

眞鑑禪師碑銘의 構成과 같다. 그러면, 孤雲이 撰述한 本來의 順序대로 그 構成 段階에 따라 內容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第1段은 佛教의 傳來過程, 禪法의 東傳, 智證大師의 禪統 등 세가지로 나누어 新羅 佛教史가 叙述되어 있다.

孤雲은 佛教가 우리 나라에 傳來된 過程을 百濟, 高句麗, 新羅의 順으로 보고 있다.

옛날 東國이 鼎立된 때를 당하여 百濟는 蘇塗의 의식이 있었으니 옛날 漢武帝가 甘泉宮에서 禮拜드린 것과 같았고, 그 후 西晉의 曇始가 처음 貊國에 간 것은 迦摩摩騰이 漢에 들어온 것 같으며 고구려의 阿度가 新羅에 건너온 것은 康會가 남방 毘舍離에 간 것과 같았으니 이때가 곧 梁나라 武帝가 東泰寺에서 궁으로 돌아온 지 1년만이요 우리 法興王이 律令을 제정한 지 8년 만이었다.¹¹¹⁾

孤雲은 高句麗에는 이미 小獸林王 2年(372)에 佛教가 公認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梁 高僧傳에 東晉의 孝武帝 太元 末年頃 曇始가 經律 數十部를 가지고 遼東에 와서 宣化하다가 돌아갔다는 記事에 따른 것 같고, 新羅에 佛教가 傳來된 것을 阿度가 신라에 온 法興王 14年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海東高僧傳의 記錄에 따른 것 같다. 崔致遠이 佛教의 傳來가 律令 頒布후 8年만인 것을 特記하고 있는 점은 당시의 新羅人들이 律令頒布를 전후한 法興王시대의 政治的인 變革을 대단히 중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政治的인 變革을 새로운 思想體系로서의 佛教의 傳來(사실은 公認)와 결부시켜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라 본다.¹¹²⁾ 그 후, 신라 불교의 전파과정을 異次頓의 殉敎, 眞興王이 末年에 歿하고 중이 된 事實, 신라의 승려가 入唐 修學하고 中國 승려들이 新羅에 오는 등 승려교류, 寺刹의 건립 등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신라에 佛教가 興盛하여 三國의 統一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新羅統三 以後 小乘佛教가 먼저 들어오고 大乘佛教가 뒤에 들어와서 佛教의 敎學과 戒律이 盛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³⁾

이어서 禪宗의 東傳에 대해 道義와 洪陟을 傳來의 선구자로 들고 있다. 長慶(821~824) 初年에 중 道義가 入唐하여 馬祖道一의 門中에서 三大士의 한 사람이었던 智藏으로부터 心印을 받고 돌아와 禪法을 퍼니 모두들 ‘魔語’라 하므로 北山北 즉 雪岳山에 隱遁하여 버렸으나 “겨울 산봉우리에 빼어나고 定林에서 꽃다운으로 그 德을 사모하여 모여든 사람이 산에 가득했다”¹¹⁴⁾고 한다. 이는 곧 道義가 心印을 康居和尚에게 傳하고 康居는 다시 普照禪師 體澄에게 傳하여 禪風을 크게 일으켜 그 門下에 英惠, 淸奩, 義車, 迥微

111) “昔當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儀 若甘泉金人之祀 厥後西晉曇始始之貊 如攝騰東入 句麗阿度 度于我 如康會南行 時乃梁菩薩帝 反東泰一春 我法興王 制律條八載也”(智證大師碑銘).

112) 崔柄憲, 앞의 논문.

113) “昔之最爾三國 今也壯哉一家 鴈利雲排 將無隙地 鯨桴雷振 不遠諸天 漸染有餘 幽求不斂 其敎之興也 毘婆娑先至 則四郡駟四諦之輪 摩訶衍後來 則一國耀一乘之鏡 然能義龍雲躍 律虎風騰 洵學海之波濤 蔚鷄林之柯葉”(智證大師碑銘).

114) “泊長慶初 有僧道義 西泛瞻西堂之奧 智光倅智藏而還 始語玄契者 縛猿心護奔北之短矜 鷄翼詣圖南之高 既醉於誦言 競唯爲魔語 是用賴光廡下 斂跡壺中 罷思東海東終道北山北 豈大易之无悶 中庸之不悔者耶 然秀冬嶺 芳定林 蟻慕者彌山 鷹化者幽谷 道不可廢 時然後行”(同上).

등 800여인이 나와 禪宗九山派의 하나인 迦智山派를 이루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興德王이 王位를 계승하고 宣康太子가 金憲昌의 반란을 진압한 후, 改革政治를 실시할 때 洪陟大師가 智藏으로부터 心印을 받아와 南岳, 즉 智異山에 머무르면서 王의 歸依를 받는 등 禪風을 크게 일으켜 禪宗이 敎宗을 압도하게 되었다¹¹⁵⁾고 孤雲은 보고 있다.

道義와 洪陟에 이어 많은 승려들이 入唐 求法하였는데 그 중에는 中國에 歸化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도 있었고 歸國하여 각 곳에서 開山하는 者도 많았다고 하였다.

이후에 俗간이 물결을 파르듯이 求法僧의 선탁이 왕래하고 所示의 方便이 眞道에 융합하였으니 너의 祖僧은 생각지 않겠는가? 무리들의 번성함이 있다. 혹은 같이 延平津에 龍으로 변해 들어가듯 中國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고 혹은 구슬이 合浦로 다시 돌아오듯 入唐 求法하여 돌아왔으니 巨擘者는 손가락을 꼽아 셀 만하다. 중국에 歸化한 사람은 靜衆寺의 無相, 常山懸覺, 益州金, 鎮州金 등이고 歸國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道義(迦智山 開祖), 洪陟(實相山 開祖)과 太安寺의 慧徹國師(桐裏山 開祖), 慧目山の 玄昱(鳳林山 開祖), 智力門, 雙谿寺의 慧昭, 新興彦, 涌岩體, 珠丘休, 雙峯山の 道允(獅子山 開祖), 巖山寺의 梵日(閭巖山 開祖), 兩朝國師인 聖住寺의 無染(聖住山 開祖) 등은 菩提의 宗으로서 德의 厚함은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道의 존귀함은 王에게 스승이 된 者들이었으니 옛말에 이름을 피해도 이름이 나를 따르고 명성을 피해도 명성이 따른다는 이들이었다. 그리하여 敎化는 중생에게 덮이었고 자취는 비석에 전하였으며 좋은 兄弟와 子孫이 있어 禪宗을 雞林에 태어나게 하고 敎宗을 東方에 흐르게 하였다.¹¹⁶⁾

다음으로 智證大師의 禪統에 대해 敍述하고 있는데, 먼저 다른 禪宗의 開山祖들은 모두 入唐求法했으나 大師만은 入唐하지 않고 國內에서 大道를 깨쳤음을 높이 찬양하였다. 大師는 梵體大德에게서 蒙昧를 깨우치고 瓊儀律師로부터 具足戒를 받고 慧隱嚴君에게서 禪理를 탐구하고 楊孚令子에게 道를 전수했다고 한다. 大師의 法胤은 五世父가 四祖道信이고 雙峯四祖의 弟子는 法朗이며 孫弟子는 信行이요 曾孫弟子는 遵範이요 玄孫弟子는 慧隱이요 末孫弟子가 智證大師라¹¹⁷⁾ 하였다.

이상의 撰述內容은 智證大師의 禪統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新羅禪宗史의 아주 貴重한 史料라 생각된다.

第2段은 六異와 六是를 敍述한 것이니 이는 智證大師 生涯中에 일어난 여섯 가지의 奇異事와 여섯 가지의 올바른 行實을 特記한 것이다. 六異는 ①誕生の 奇異 ②宿習의 奇

115) “及興德大王纂戎 宣康太子監撫 去邪醫國 樂善肥家 有洪陟大師 去西堂證心 來南岳休足 驚冤陳順風之請 龍樓慶開露之期 顯示密傳 朝凡暮聖 變非爵也 興且勃焉 試較其宗趣 則修乎修沒修 證乎證沒證 其靜也山立 其動也谷應 無爲之益 不爭而勝 於是乎 東人方寸地靈矣 能以彰利 利海外 不言其所利 大矣哉(同上)”

116) “爾後觸驚河釜融道 無念爾祖 寔繁有徒 或劔化延津 或珠還合浦 爲巨擘者 可屈指焉 西化則靜衆無相 常山懸覺 益州金 鎮州金者 是也 東歸則前所叙北山義 南岳陟 而降太安徹國師慧目 育智力門 雙溪昭 新興彦 涌岩體 珠丘休 雙峰雲 孤山日 兩朝國師 聖住染爲菩提宗 德之厚爲父衆生 道之尊爲師王者 古所謂逃名名我隨 避聲聲我追者 故得皆化板恒沙 蹟傳豐石 有令兄弟 宜爾子孫 俾定林標秀於鷄林 慧水安流於饒水矣”(同上)

117) “別有不戶不闢而見大道 不山不海而得上實 恬然息意 澹乎忘味 彼岸也不行而至 此土也不嚴而治 七賢執取譬 十住難定位者 賢溪山智證大師其人也 始大成也 發蒙于梵體大德 稟具于瓊儀律師 終上達也 探玄于慧隱嚴君 受默于楊孚令子 法胤 唐四祖 爲五世父 東漸于海 迴流數之 雙峯子法朗 孫續行 曾孫遵範 玄孫慧隱 末孫大師也”(同上)

異 ③孝感의 奇異 ④勵心の 奇異 ⑤律身の 奇異 ⑥垂訓의 奇異등 여섯가지 奇異事를 뜻하고, 六是는 ①行藏의 脞음 ②報恩의 脞음 ③檀捨의 脞음 ④善心開發의 脞음 ⑤出處의 脞음 ⑥用捨의 脞음 등 여섯 가지의 올바른 行實을 말한다. 이를 차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大師의 俗姓은 金氏고 號는 道憲이요 字는 智詵이다. 父는 贊瓊, 母는 伊氏였으니 키는 八尺이었고 얼굴은 1尺정도였으며 儀狀은 尊嚴했고 말은 웅장하고 通達하여 위엄이 있었지만 사납지는 아니했다. 俗壽 五十九, 法臘이 四十三인 大師의 生涯中에서 우선 여섯가지의 奇異한 일이 있었다. 그 첫째 奇異한 것은 大師가 태어날 때 母親의 꿈에 巨人이 나타나 告하기를 “나는 옛날에 勝見佛의 末世에 중이 되었는데 성을 얻 까닭으로 龍報에 떨어졌으나 業報가 이미 끝났으니 法孫이 될 것이므로 妙緣에 의탁하여 자비스러운 教化를 弘布하기 원한다. (初母夢 一巨人告曰僕昔勝見佛 季世爲桑門 以瞋恚 故久墮龍報 報既矣 當爲法孫 故托妙緣 願弘茲化)”는 꿈을 꾸고 大師를 잉태하여 400일이 지나 四月八日에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수 일에 먹지 않고 울었는데 한 道人の 말에 따라 葷菜와 달고기를 끊으니 아무 탈이 없게 되어 양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삼가게 하고 고기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품게 한 것이 둘째 기이한 일이었다. 셋째는 부처님이 出家할 때 城을 넘고 간 것처럼 師도 도망하여 出家했고 모친의 癰疾이 낫지 않아 부처님께 歸依하여 낫게 함으로써 맹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慈親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 버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孝道로 감동시킨 기이한 일이다. 네째는 講壇에서 소매속에 神光이 선명함을 깨달아 구슬을 얻었는데 굶주려 울부짖는 자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고 취해서 넘어진 자로 하여금 깨어나게 했으니 이것이 마음을 힘쓰게 한 네번 째 기이한 일이었다. 다섯째는 夏安居를 마친 밤의 꿈에 普賢菩薩이 나타나 “苦行을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행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꿈을 깨니 가려움증이 생겨 피부에 도장이 새겨졌으므로 다시는 명주옷과 솜옷을 입지 않았으며 노끈과 가는 실을 사용하지 않고 삼과 닥나무를 사용하였고 양가죽으로 만든 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솜옷과 亂麻를 입는 자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명주옷을 입는 자로 하여금 낮이 뜨겁게 했으니 이것이 律身の 奇異함이었다. 여섯째는 後進가르치기를 사양했으나 山中에서 어떤 나무꾼이 “先覺이 後覺을 깨닫게 하는데 幻身을 아길 필요가 있는가?” 하고 사라지므로 깨닫고 後進 가르치기에 힘썼고 후에 다른 곳에 집을 짓고 “매어 있지 않는 것이 본래의 생각이었으니 능히 옮기는 것이 귀중하다”라 하여 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날마다 3가지를 반성케 하고 禪室을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홉 가지를 생각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교훈을 드리운 기이한 일이었다.

여섯 가지 脞은 일은 첫째, 景文王이 大師를 王京의 岩居에 머물기를 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端儀長翁主가 大師에 歸依하여 封邑 判官인 賢溪山安樂寺에 主持되기를 청하자 허락하고 居住한즉 이는 教化하여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고요하게 하고

땅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더욱 삼가하게 했으니 바로 道를 行하고 물러가서 숨는 것의 옳음이었다. 둘째, 大師를 僧籍에 넣어 중이 되게 한 金嶷勳에게 丈六玄金像을 주조, 황금을 발라서 절을 지키고 冥路를 인도하는데 쓰도록 佛로 보답했는데 이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하여금 篤實하게 하고 義를 갖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게 했으니 바로 은혜의 보답을 알게 한 옳음이었다. 셋째는 檀越公主가 농장과 노비문서를 喜捨했는데, 大師는 王의 허락을 받아 절에 예속시켰으니, 이것은 밖으로는 君臣의 益地를 돕고 안으로는 父母가 하늘에서 태어나게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善을 베푸는 자로 하여금 仁을 일으키게 하고 歌人을 상주는 자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게 하였으므로 檀越의 喜捨함이 옳았다는 것이다. 네째 옳음은 心忠이란 이가 “弟子의 남은 땅이 驤陽山腹의 鳳岩龍谷에 있는데, 地境이 괴이하여 사람의 눈을 끄니 禪刹을 세우기 바랍니다.” 하니 大師가 地勢를 살펴보니 산이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싸 붉은 봉황의 날개가 구름을 치고 올라가는 듯하고 물이 백 겹으로 떠처럼 둘러싸 이무기의 허리가 돌에 얹혀 있는 듯하여 “이 땅을 얻게 된 것은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憲康王 7年(881)에 敎를 내려 鳳岩이라 하고 大師가 가서 敎化하며 山백성으로 野寇된 자가 처음엔 化輪에 항거했으나 敎化에 감화되었으니 邪心을 제어하고 善心을 開發한 것이다. 다섯째는 憲康王의 부름을 받고 입궐하여 달그림자가 玉沼의 복판에 일한 것을 보고 “金波 이것이 靈知니 그 나머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은 大師를 忘言師로 삼고 머물러 주기를 청했으나 대사는 “새를 새로서 기르시면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하고 떠났으니 이것이 나아가서 교화하고 물러가서 도를 닦는 옳음이었다. 그리고, 여섯째는 大師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는 말과 소를 이용하지 않았고 산에서는 氷雪이 길을 막으매 임금이 步輿를 내렸으나 타지 않았고 病으로 석장을 질고도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이것을 이용했는데, 이는 병을 근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구제케 하고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偏執을 버리게 하였으니 使用하고 버림의 옳음이었다.

以上과 같은 六異와 六是를 통하여 大師의 人格과 德望을 드러내고 있다.

第3段에서는 碑銘撰述의 過程을 밝히고 있다. 憲康王 8年(882) 12月 18日 大師가 跏趺坐하여 대화하다가 入寂하자 王은 金立言에게 命하여 弟子들을 위로하고 諡號를 ‘智證大師’, 塔號를 ‘寂照’라 내리고 塔碑建立을 허락, 行狀을 아뢰게 하니 門人 性鑑, 敏休, 楊孚, 繼徽 등 鳳尾를 얻은 者들이 묵은 事蹟을 모아 바치므로 孤雲으로 하여금 碑銘을 짓도록 命했다고 한다. 撰述에 임하려던 次에 憲康王이 승하하여 중단했다가 門人 爽英이 와서 재촉하여 碑銘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第4段은 銘詞이니 七言古詩 44句로 된 偈頌이다. 碑銘 序文에서 叙述한 것과 같이 佛敎의 東傳과 禪法의 傳來를 읊고, 大師의 行蹟과 禪業을 찬양하고 있다.

北山義與南岳步	북산의 道義와 남악의 洪步은
垂鵠翅與展鵬翼	鵠鵠의 쪽지 드리고 大鵬의 날개 폈네.
海外時來道難抑	해외에서 돌아오니 도는 꺾기 어렵고
遠派禪河無擁塞	멀리 뻗은 禪統은 막힘이 없네.
蓬托麻中能自直	다복죽은 삼대 기대 스스로 곧았고
珠探衣內體傍貳	옷 속에서 구슬찾아 땀 곳에서 찾을 것 없네.
湛若賢溪善知識	맑기가 賢溪같은 우리 善知識
十二因緣非虛飾	열두가지 인연이 허식이 아니로세.
何用攀經兼拊杙	무엇하러 드립줄 잡고 말뚝에 매달리며
何用砥筆及含墨	무엇하러 붓을 씻어 먹물 머금을까?
彼既遠學來匍匐	저는 이미 멀리 배워 고생해 돌아 왔으나
我能靜坐降魔賊	나는 능히 정좌하여 마적을 물리쳤네.

이것은 禪學의 傳來함과 智證大師가 留學가지 않고 禪門을 열었음과 六異와 六是 등 異蹟의 禪業을 찬양한 것이다. 44句 全銘詞가 一韻到底格 每句韻으로 되어 있다. 韻字는 德, 黑, 式, 力, 域, 國, 側, 特, 職, 色, 賊, 洫, 息, 惑, 測, 極, 得, 嘿, 陟, 翼, 抑, 塞, 直, 貳, 識, 飾, 杙, 墨, 匍, 賊, 植, 穉, 億, 北, 葡, 稷, 栳, 栳, 棘, 墮, 勒, 織, 食, 刻 등 40字인데, 入聲十三職韻이다. 이 銘詞에는 強韻이 사용된 點이 특이하다.

4. 崇福寺碑銘의 構成과 內容

이 碑銘의 原文은 「有唐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銘并序」이고, 碑題 다음, 바로 碑의 本文인 序와 銘이 나오고 끝에 書刻者名이 나온다.

事蹟碑銘인 이 崇福寺碑銘의 構成은 다음과 같이 4段으로 이루어져 있다.

第1段 新羅佛法의 興盛

臣聞 王者之基~衆妙之妙 何名可名

第2段 鵠寺의 由來와 崇福寺의 改建過程

金城之离 日觀之麓~父作之 子述之者耶

第3段 碑銘의 撰述過程

慶曆景午年春 願謂下臣曰~追蹤華而獻銘曰

第4段 銘 詞

迦衛慈王 嵎夷太陽~鎔壑雖渴 龜珉不朽

물론, 이 4段 構成은 起, 承, 轉, 結의 四分法을 취하고 있다.

각 段의 內容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段에서는 우선 儒敎의 仁과 孝가 重要하지만 佛 尊生을 미혹한 데서 건져주고 높으신 훈령을 항상 즐거운 곳에 받드는 것이 제일이니 이것이 바로 佛法이라고 前提하고 新羅에는 君臣, 士庶 모두 佛敎에 歸依하여 가는 곳마다 塔廟를 많이 세워 兜率天에 부끄

럽지 않다고 하였다.

임금과 신하는 뜻을 三歸에 밝히고 관료와 서민은 정성을 六虔에 기울이며 國城에까지도 아낌이 없어서 능히 塔廟를 서로 바라볼 정도로 많이 세웠으니 비록 膽鄕洲의 해변에 있지만 어찌 兜率天에 부끄러우려. 못 미묘하고도 미묘한 것을 어찌 다 말할까?¹¹⁸⁾

第2段에서는 옛 절인 鵠寺의 由來와 새 절인 崇福寺 改建過程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要旨는 다음과 같다.

慶州 남쪽 初月山 기슭에 있는 崇福寺는 景文王이 王位를 계승하던 첫 해에 元聖王의 園陵을 받들고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다. 元聖王母인 昭文王后의 외삼촌이고 王妃인 肅貞王后의 외조부되는 波珍痕 金元良이 옛 절을 지었는데 鵠狀의 바위가 있어 寺名을 鵠寺라고 했었다. 元聖王이 돌아가자 이 산이 元聖王의 因山이 되어 이 절에 秘殿을 奉安하고 절을 옮기게 되었다. 그 후 72年 9朝를 지나 여러 번 넘어져도 重修하지 못했더니 景文王이 즉위하여 元聖王의 夢感을 얻어서 이 절에서 講會를 열고 농한기에 宗室의 端元, 敏榮, 裕榮 등 三良에게 命하여 釋門의 二傑 즉 賢諒과 神解에게 맡겨 改建케 하였다. 그리고, 憲康王은 中和 乙巳年(885) 가을에 敎旨를 내려 鵠寺를 大崇福寺로 고치도록 했었다.¹¹⁹⁾

한편, 改建한 崇福寺의 규모가 雄偉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솜씨로 꾸미고 아로새겼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점치고 택일하여 큰 규모를 마련하며 흙을 조화하고 금을 만들어 부으며 미묘한 솜씨를 발휘하여 구름사다리엔 榼材로써 험한 데 얹어 놓았고 서리 바람엔 樓의 배토에 향을 이겨 넣으며 바위 산밭을 깎아 담을 돈우고 시내 흐름을 메워 창호를 높게 하며 거칠은 섬들을 금네 장식한 섬들로 바꾸고 낮은 행랑을 옥으로 조각한 행랑으로 만들었다. 겹겹인 전당엔 용이 서렸는데 복판에 毘盧遮那를 주인으로 모시고 층층인 누각엔 봉황이 우뚝 섰는데 위를 修多羅로 이름하였다. 고래등 같은 집마루를 높이 설치하고 鸞새 그린 난간을 마주올렸다. 천정의 우물 반자는 꽃을 포개어 수 놓았고 柱頭는 서로 끼어서 두가지로 가새복을 내어 날개를 좇구쳐 날아갈 듯 하니 보는 이는 누구나 눈이 아찔하리라. 그 외에 더 높이고 고쳐지은 것은 부처님 모신 법당과 스님들이 거처할 蓮房이며 공양하는 식당과 음식단드는 공수간이었다. 더욱 공교로운 솜씨를 다하여 아로새기고 다듬었으며 정력을 기울여 채색하고 단청하였으니 암굴과 골짜기도 따라 맑으며 연기와 놀이 서로 찬란하다.¹²⁰⁾

第3段에서는 崇福寺碑銘의 撰述過程을 서술하고 있는데, 孤雲은 定康王 元年 봄에 崇福寺碑銘의 찬술을 下命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118) “君臣鏡志於三歸 士庶超誠於六虔 至乃國城無惜 能令塔廟相望 雖在膽鄕洲海邊 寧衛都史多天上 衆妙之妙何名可名”(崇福寺碑銘).

119) “中和 乙巳年秋 敎曰善繼其志 善述其事 永錫爾類 在我而已 先朝所建鵠寺 自易榜爲大崇福寺”(同上).

120) “於是占星揆日 廣拓宏規 合土範金 爭呈妙技 雪梯而榼材架險 霜塗而鸞聖黏香 廟凸龍而培垣 壓溪流而敞戶 易荒階以鉤砌 變卑廡以瑀廊 複殿龍盤 中以盧舍那爲主 層樓鳳峙 上以修多羅爲名 高設鯨桴 對標鸞檻 綺井華攢而鞞鞞 繡栢枝擁而杈枒 聳翼如飛 回眸必眩 其以增嵩而改作者 有若眸容別室 圓頂蓮房 揣食牆堂 晨炊廖舍 加以雕甍磬巧 彩鸞窮精 巖洞共清 烟霞相煥”(同上).

慶曆 丙午年 봄에 下臣을 보시고 이르기를 「禮에서 이르지 아니했더냐? 銘이란 스스로 이름이니 그 先祖의 德을 칭송하고 후세에까지 밝게 나타내는 것이 효자 효손의 마음이라 하였다. 先祖께서 절을 세울 때 큰 誓願을 발하셨는데 金純行이 그대의 아버지 肩逸과 함께 이 일에 從事하였다. 銘이 한번 거행되면 위아래가 모두 相得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銘을 지으라」 하셨다.¹²¹⁾

여기에서 孤雲의 父親 肩逸이 崇福寺 建立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碑銘撰述 中에 定康王이 돌아가고 眞聖女王이 王位를 계승하게 되었다는 기록까지는 있으나 언제 碑銘을 完成했는지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다.

第4段은 銘詞로서 崇福寺의 移建과 改建의 事實을 읊고 崇福寺의 威容과 元聖王과 景文王을 비롯한 憲康王 定康王 眞聖女王 등 崇福寺 創建과 改建에 관련된 歷代王들의 德業을 칭송하고 있다. 四言古詩體로 된 偶頌인데 총 64句로 되어 있다.

蜃締龍輻 山園保眞	신불과 용운으로 산원에서 진채보존.
幽堂關隴 聳塔遷隣	유당에 묘길열어 높은탑 곁에 옮겨
萬歲哀禮 千生淨因	만세의 애모禮度 千生の 청진터전.
金田厚利 玉葉長春	금밭의 厚利와 옥잎사귀 진분이라.
孝孫淵懿 昭感天地	효손은 아름다와 천지를 감령시켰네.
鳳翥龍躍 金圭合瑞	봉나르고 응이뛰어 金圭가 玉瑞에 합했네.
包靈不昧 徽福斯至	神靈밀어 흐리지 않고 복맞아 이르렀네.
欲報之德 剋隆法事	그덕을 갚으려고 法事높이 받드셨네.

이는 銘詞의 中間部分으로 景文王이 鵠寺를 元聖王의 園陵으로 만들고 이 절을 옮겨서 重建, 大崇福寺를 이루게 된 功德을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이 銘詞는 八句를 一解로 하는 逐解換韻法을 취하고 있는데, 第一解는 韻字가 王, 陽, 方, 昌, 裝으로서 下平聲七陽韻을 썼고, 第二解는 韻字가 祖, 禹, 土, 母, 浦로서 上聲七麌韻을, 第三解는 韻字가 輻, 眞, 隣, 因, 春으로서 上平聲十一真韻을, 第四解는 韻字가 懿, 地, 瑞, 至, 事로서 去聲四寘韻을, 第五解는 韻字가 工, 宮, 虹, 融으로서 上平聲一東韻을, 第六解는 , 灑, 瀉, 夜, 下로서 上聲二十一馬通韻을, 第七解는 韻字가 德, 國, 力, 食, 極으로서 入聲十三職韻을, 第八解는 韻字가 后, 友, 首, 肘, 朽로서 上聲二十五有韻을 쓰고 있다.

V. 四山碑銘의 文體分析

孤雲이 쓴 四山碑銘은 典型的인 四六駢儷文이다. 그런데, 駢儷文은 漢代의 揚雄, 司馬相如, 張衡, 蔡邕 등이 對句를 重要視한 데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겠으나 본격적인

121) “慶曆景午年春 願謂下臣曰 禮不云乎 銘者自名也 以稱其先祖之德 而明著之後世 此孝子孝孫之心也 先朝締構之初 發大誓願 金純行與若父肩逸 嘗從事於斯矣 銘一稱而上下皆得 爾宜讓銘”(同上)

駢儷文은 魏・晉時代に 形成되었고 南北朝 時代に 와서 그 全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唐 때에 와서는 韓退之와 柳宗元에 의한 古文運動에 따라 다소 綏縮되었다가 晚唐 때에는 公文書에는 물론 科擧文으로 쓰이게 되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孤雲은 駢儷文이 유행하던 晚唐期에 留學을 하게 되었고, 科擧 공부에 전념했기 때문에 駢儷文을 힘써 익혔을 뿐만 아니라 高駢의 從事官이 된 후에도 駢儷體의 文章이 사용되는 公文書를 專擔했으므로 자연 公文書는 물론이고 일반 다른 文章들도 駢儷體로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歸國 後에 쓴 四山碑銘도 駢儷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駢儷體 文章의 세가지 특성은 ① 語句面에서는 對偶와 「四六」이고 ② 語音面에서는 「平仄相對」이며, ③ 用辭面에서는 用典과 修飾이다.¹²²⁾

本稿에서는 四山碑銘의 文體上 特徵을 ① 對偶와 四六, ② 用典과 修飾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1. 對偶와 四六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달리는 것을 ‘駢’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偶’라고 하니, ‘駢偶’란 ‘짝’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駢偶는 ‘對仗’ 또는 ‘對偶’라고도 하는데, 駢儷文은 일반적으로 對偶 즉, 平行하는 두 句가 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對偶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句構造의 相互對稱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上下聯 内部의 句法과 構造도 일치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초기의 駢儷文은 일반적으로 對만 이루면 되었기 때문에 同字對도 피하지 않았으나 후기의 駢儷文은 同字對를 피하고 精巧함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對偶를 聯綿對, 雙聲對, 疊韻對 등 20~30類로 나누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雙句對와 隔句對, 正對와 反對를 中心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駢儷文은 대체 4字句와 6字句로 이루어지는데, 柳宗元은 乞巧文에서 “4字句와 6字句를 나란히 짝하여 珠玉같은 글을 이룬다.(駢四儷六 錦心繡口)”고 그 특징을 말하였다. 그래서 駢儷文은 晚唐 때는 물론이고 宋・明代에는 四六이라 했고 清代에 이르러서 비로소 駢儷文이라 했다. 魏・晉時代의 駢儷文은 그 文章의 글자 수에 엄격한 제한이 없었으나 흔히 4字句를 많이 썼고, 齊梁時代 이후에는 四六의 격식이 완전히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四六의 기본構造로는 ① 4・4 ② 6・6 ③ 4・4・4・4 ④ 4・6・4・6 ⑤ 6・4・6・4 등 5가지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3字句나 5字句로 변하기도 하고, 7字句나 8字句로 늘어나기도 한다.

眞鑑禪師碑銘에는 단순한 4・4句를 제외하고 완전한 對偶句가 27回 사용되었는데 이중 4・4 對偶가 14回, 6・6對偶가 5回, 5・5對偶가 4回, 4・4・4・4對偶가 2回, 7・7對偶가 2回 쓰였으며, 그 외에 6・6・6・6對偶, 3・6・3・6對偶가 1回씩 사용되었다. 27回的 對偶句 중에

122) 王力 主編, 古代漢語(中文出版社, 1967), p.1223.

는 正對로 된 것이 20回, 反對로 된 것이 6回였다. 그리고, 雙句對가 21回였고, 隔句對가 5回였다. 이 중 몇 가지 경우만 택하여 分析해 보기로 한다.

- (1) 命寄剝木 心縣賣洲
 - (2) 孔發其端 釋窮其致
 - (3) 競使千門入善 能令一國興仁
 - (4) 慧炬則光融五乘 嘉肴則味飫六籍
 - (5) 國主之外護 門人之大願
 - (6) {清眼界者 隔江遠岳}
{爽耳根著 迸石飛湍}
 - (7) {采玉者 不憚崑丘之峻}
{探珠者 不辭驪壑之深}
 - (8) {(或有)以胡香爲贈者 則以互載燭灰 不爲丸而炳之(曰) 吾不識是何臭 虔心而已}
{(後有)以漢茗爲供者 則以薪爇石釜 不爲屑而羹之(曰) 吾不識是何味 濡服而已}
- 守眞忤俗皆此類也.

위의 對偶句 (1)~(5)은 雙句對이고, (6)~(8)은 隔句對이다. 그리고 對偶句 (2)는 反對이고 다른 것은 모두 正對이다.

그런데, ‘正對’란 사실이 다르면서도 내용이 공통되는 것이요, ‘反對’란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 하나의 趣旨로 歸着하는 것을 말한다.¹²³⁾ 위의 對偶句 (2)에서 ‘孔’과 ‘釋’, ‘發’과 ‘窮’, ‘端’과 ‘致’는 서로 對立되는 語이지만 두 句는 ‘至極한 道’라는 同一한 趣旨로 歸着하므로 ‘反對’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만들기 어려운 對句이다. 駢儷文 對偶句의 리듬은, 4字句는 대개 「2·2」이고, 6字句는 「3·3」 또는 「2·4」인데 「3·3」句式은 「3·1·2」로 나눌 수도 있고, 「2·4」句式은 「2·2·2」로 나눌 수도 있다. 5字句의 리듬은 「2·1·2」 혹은 「1·4」이고 7字句의 리듬은 「3·4」, 「3·1·3」, 「2·5」, 「4·1·2」, 「2·3·2」 등이다.¹²⁴⁾ 위의 眞鑑禪師碑銘의 對偶句 중에서 (1)과 (2)의 리듬은 「2·2」이고, (3)은 「2·2·2」, (4)는 「2·3·2」, (5)는 「2·1·2」, (6)은 「2·2」, (7)의 6字句는 「2·4」, (8)의 6字句는 「3·3」, 「2·2·2」, 「3·3」, 「3·3」, 4字句는 「2·2」이다.

한편, 駢儷文 對偶句의 平仄은 반드시 ‘平對仄’ 또는 ‘仄對平’이어야 한다. 平仄을 엄격히 지켜야 할 곳은 節奏點이다. 위의 眞鑑禪師碑銘의 對偶句 중에서 (1)은 ‘平—仄’對를, (2)는 ‘仄—平’對를, (3)은 ‘仄—平—仄’對를, (4)는 ‘仄—平—仄—平’對를, (5)는 ‘仄—平’對를, (6)은 ‘仄—平—仄’對를, (7)도 ‘仄—平—仄’對를, (8)은 ‘平—仄’, ‘仄—平’對를 이루고 있다.

朗慧和尚碑銘에는 40여 回의 對偶句가 使用되었는데, 4·4對偶가 7回, 7·7對偶 4回, 5·5對偶 4回, 8·8對偶 3回, 6·6對偶 2回, 3·6·3·6對偶가 2回, 5·5·5·5對偶가 2回 쓰였으며, 그 외에도 6·4·6·4, 4·4·4·4·4·4, 3·7·3·7, 4·5·4·5, 4·6·4·4·6·4對偶도 쓰였다. 이 中

123) “反對者 理殊趣合者也 正對者 事異義同者也”(劉綬, 文心雕龍, 麗辭 第三十五).

124) 王力 主編, 위의 책, p.1232.

에는 隔句對가 13回였고 그 外句는 모두 雙句對였으며, ‘反對’가 12回였고, 그 밖의 句들은 모두 ‘正對’였다.

그러던 朗慧和尚碑銘에 사용된 對偶句 중에서 代表的인 몇 例를 들어 分析해 보기로 한다.

- (1) 弱輟載重 短綆汲深
- (2) 山林何親 城市何疎
- (3) 魚非緣木可求 兔非守株可待
- (4) 天鍾斯二餘慶 岳降于一靈性
- (5) 魚腹中幸得脫身 龍額下庶幾挽手
- (6) 昔文考爲捨瑟之賢 今寡人忝避席之子
- (7) $\left\{ \begin{array}{l} \text{口囁古賢書 耳飫國師行} \\ \text{面飲今君命 目醉門生狀} \end{array} \right\}$ 宜廣記而備言之

이 對偶句 중에서 (1)~(6)은 雙句對이고 (7)은 隔句對이다. 그리고, (1), (3), (6), (7)은 ‘正對’이고 (2), (4), (5)는 反對이다.

智證大師碑銘에는 130여回 對偶句가 사용되었는데, 4·4對偶가 50回, 5·5對偶가 22回, 6·6對偶와 7·7對偶가 各 12回, 4·4·4·4對偶가 9回, 8·8對偶가 4回, 3·3對偶가 3回 쓰였고, 그 外에 4·6·4·6, 3·4·3·4, 4·7·4·7, 4·5, 6·6·4·4, 3·3·3·3, 4·7·7·4·7·7, 4·4·4, 5·3·5·3, 3·3·4·4, 6·4·6·4, 6·7·6·7對偶가 1回씩 사용되었다. 이 중 28회가 ‘反對’이고 나머지는 ‘正對’이며 12회가 隔句對이고 나머지는 雙句對이다.

智證大師碑銘 중에서 豎碑過程을 밝힌 부분의 對偶關係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授門人將 錫手教曰 (1) $\left\{ \begin{array}{l} \text{縷褐東師 始悲西化} \\ \text{繡衣西使 深喜東還} \end{array} \right\}$ 不朽之爲 有緣而至 (2) {無怙外孫之作 將醉大師之德} 臣也 (3) {雖東箭非木 而南冠多幸} (4) {方思運斧 遽值號弓} 況復 (5) {國重佛書 家藏僧使} (6) {法碣相望 碑碑最多} (7) {遍覽色絲 試搜錦頌} 則見 (8) $\left\{ \begin{array}{l} \text{無去無來之說 競抱斗量} \\ \text{不生不滅之談 動論車載} \end{array} \right\}$ (9) {曾無魯史新意 不用周公舊章} (10) {是知石不能言 益驗道之云遠} 惟懷 (11) {師化去早 臣歸來遲} (12) {鏤靈字誰告前因 逍遙義不聞眞訣} (13) {每憂傷手 莫悟申拳} 嘆時則露往霜來¹²⁵⁾

위 碑銘의 對偶句 중에서 (1), (4), (5), (6), (7), (11), (13)은 4·4對偶이고 나머지 (2)와 (9), (10)은 6·6, (3)은 5·5, (8)은 6·4, (12)는 7·7對偶이다. 그리고 (1)만 隔句對이고 나머지는 모두 雙句對이며, (1), (11), (12)는 ‘反對’이고 나머지는 ‘正對’이다. 이를 통해, 智證大師碑銘에 쓰인 對偶句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孤雲文의 文體 특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崇福寺碑銘에는 120여回的 對偶句가 사용되었는데, 4·4對偶가 61回로 단연 많았으며, 7·7對偶가 27回, 6·6對偶가 17回, 3·3對偶가 6回, 5·5對偶가 5回, 7·4·7·4對偶가 4回,

125) 崔文昌侯全集 pp. 193—94.

4·7·4·7對偶가 3回, 8·8對偶가 3回, 4·4·4·4對偶가 2回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7·7·7·7, 5·7·5·7, 6·4·6·4, 7·7·4·4, 4·3·4·3, 7·3·7·3, 4·3·4·3, 4·5·4·5對偶 등이 1회씩 쓰였다. 그리고, 이 중 9회가 隔句對이고 나머지는 雙句對이며 18회가 反對일 뿐 나머지는 모두 正對였다.

그러면, 崇福寺碑銘 中에서 崇福寺를 移建하는 과정을 밝힌 부분의 對偶關係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宜聞龜筮協從 可見龍神歡喜} (2) {逴遷精舍 爰創玄宮} (3) {兩役庀徒 百工藏事} 其改創紺宇則 (4) {有緣之衆 相率而來} (5) {張袂不風 植錫無地} (6) {霧市奔趨於五里 雪山和會於一時} 至於 (7) {撤互抽椽 奉經戴像} (8) {迭相授受 競以誠成} (9) {役夫之跬步不移 釋子之宴居已就}¹²⁶⁾

위 碑銘의 對偶句 中에서 (2)~(5), (7), (8)은 4·4對偶이고 (6)과 (9)는 7·7對偶, (1)은 6·6對偶이다. 모두 雙句對로 되어 있으며, (7)과 (9)는 ‘反對’이고 나머지는 ‘正對’이다. 단 (4)는 ‘正對’라기 보다는 단순히 리듬을 맞추는 ‘言對’라 하겠다.

以上の 分析을 통하여, 四山碑銘에는 4·4調 및 6·6調의 對偶句가 많으며 雙句對와 正對가 많았으나 구사하기 힘든 ‘反對’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結局, 四山碑銘이 아주 精巧한 四六駢儷體로 짜여져 있음을 쉽게 推察할 수 있다.

2. 用典과 修飾

用典과 修飾은 駢儷文에 있어 修辭의 方法으로 널리 쓰여 왔다. 특히, 用典의 경우 先秦時代에는 말이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많았으나 魏晉 以後에는 駢儷文이 점차 用典을 통하여 다듬어졌고 博雅한 내용으로 그 特徵을 나타내어서 典故 투성이가 되었으므로 用典이 言語表現의 큰 特徵이 되었던 것이다. 用典의 目的이 “文章밖에서 사실을 끌어와 그 글의 뜻을 증명하고 옛 것을 빌어서 현재의 뜻을 증명하려는 것”¹²⁷⁾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文章을 委婉, 含蓄, 典雅, 精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用典의 方法으로는 對偶句를 만들 때 필요한 故事, 故言을 잘라 모으는 剪截하는 방법과 발췌한 故事 故語를 改譯하여 자신의 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는 融化的 方法이 있다. 특히, 駢儷文에 있어서의 用典은 대개 正用에 依하고 있으나 자주 例外的인 反用도 쓰이고 있는데, 正用은 比喻와 暗示의 作用을 하는 데 비해, 反用은 對比하여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¹²⁸⁾

孤雲은 그의 文, 특히 四山碑銘에서 儒, 佛, 仙 등 광범위한 分野에 걸쳐 수많은 典故를 適切히 驅使하여 浩汗하면서도 效果的인 文章을 펼치고 있다. 用典하는 세 가지 방법 즉 ① 出典을 밝히면서 原文을 具體的으로 引用하는 方法 ② 剪截하는 方法 ③ 融化的 方法에 따라 四山碑銘에 쓰인 用典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126) 崔文昌侯全集 p.147.

127) 劉勰, 文心雕龍 事類 第三十八 참조. “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證今者也”

128) 王力 主編, 앞의 책 p.1237.

四山碑銘의 序文 中에 出典을 밝히면서 原文을 具體的으로 引用한 例를 몇 가지만 摘出하던 다음과 같다.

- (1) 禮所謂 言豈一端而已<眞鑑禪師碑銘>
- (2) 昔尼父謂門弟子曰 予欲無言 天何言哉<同上>
- (3) 西漢書留侯侯云 良所與上 從容言天下事甚衆 非天下所以存亡故不著<朗慧和尚碑銘>
- (4) 麟史 不云乎 公侯之子孫 必復其始<同上>
- (5) 豈大易之无悶 中庸之不悔者耶<智證大師碑銘>
- (6) 無念爾祖 詩寧忘乎<崇福寺碑銘>
- (7) 得非尼父所謂 無憂者其惟文王 父作之 子述之者耶<同上>

이런 方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適所에 적절히 引用하여 信賴感을 주는 效果를 얻고 있다.

제일 많이 사용한 方法이 剪截이고 그 다음이 融化인데 紙面관계상 모두 다 摘出하여 分析할 수 없기 때문에 各 碑銘에서 剪截과 融化에 해당하는 文章을 하나씩만 골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今上繼興 墳旆相應<眞鑑禪師碑銘>
- (2) 月蔽三十夫 藍茜沮本包<朗慧和尚碑銘>
- (3) 懸鏡秦宮之事跡 昭昭焉如揚合璧 苟非三尺喙<智證大師碑銘>
- (4) 粵若稽古寺之濫觴 審新利之覆簣<崇福寺碑銘>
- (5) 至今東國 習魚山之妙者 競如掩鼻<眞鑑禪師碑銘>
- (6) 夜聽易惑 空樓難分<朗慧和尚碑銘>
- (7) 襲變字誰告前因 逍遙義不聞眞訣<智證大師碑銘>
- (8) 歲久而永懷耕象 時和而罷問喘牛<崇福寺碑銘> (이상 방점一筆者)

위의 (1)~(4)는 剪截의 例인데, (1)의 ‘墳旆’는 詩傳 小雅章의 “伯氏吹塤 仲氏吹篪”에서 따온 것으로 ‘兄弟’를 뜻하며 (2)의 ‘藍茜’는 淮南子の “青出於藍而青於藍 絳生於茜而絳於茜”에서 따온 것인데 ‘弟子가 스승보다 낫다’는 意味로 사용되었다. (3)의 ‘合璧’은 古詩 “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에서 截取한 것으로 日月과 같이 ‘明白함’을 뜻하고 ‘三尺喙’는 莊子の “孔子曰願有三尺喙”에서 따온 것인데 ‘善辯家’의 意味로 쓰였다. 그리고, (4)의 ‘濫觴’은 詩傳의 “三江浩浩 其源濫觴”에서 取한 것으로 ‘事之始’의 뜻으로, ‘覆簣’는 孟子에 나오는 “爲山九仞 功虧一簣 若盡一簣則是覆也”에서 따온 것으로 ‘事之終’의 뜻으로 쓰였다.

한편, (5)의 ‘魚山’은 魏의 曹植이 魚山에서 놀다가 바위 골짜기에서 誦經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는 것을 듣고 감동되어 그 曲調에 따라 梵唄를 지었다는 故事에서 이끌어와 ‘梵唄’의 뜻으로 쓰고 있고, ‘掩鼻’는 晋나라 때 謝安이라는 貴人이 洛生詠이라는 歌曲을 즐겨 불렀는데 그는 코먹은 소리를 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 音聲을 모방하느라고 손으로 코를 가리고 코먹은 소리를 내었다는 故事에서 ‘模倣’이라는 의미로 이

끌어 쓴 것이다. (2)의 ‘夜繩’은 ‘밤에 새끼를 의심하여 진짜 뱀으로 여긴다’는 것으로 偏計된 執情을 뜻하는데 小乘法의 執有를 가리킨 것이고 ‘空樓’는 옛날에 지극히 우매한 사람이 織師에게 가서 細布를 구하므로 아주 가는 실을 보여 주었더니 그 우매한 사람이 “거칠다”고 하자 織師가 그의 分別力없음을 알아차리고 공증을 가리키며 “이 실은 어떤가”하니 우매한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습니까” 하므로 織師가 “가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보이는 것이라면 이는 거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故事에서 이끌어 온 것으로 大乘法의 玄空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3)의 ‘鰥鰥’는 한 比丘가 法華經을 익히는데 항상 「애체(鰥鰥)」 두 글자를 잊어버리므로 그 스승이 “네가 전생에 가졌던 법화경의 이 두 글자가 좀이 먹었었기 때문에 항상 잊는다”고 말했다는 法華靈驗傳에 나오는 故事를 이끌어 쓴 것이며 (4)의 ‘耕象’은 옛날 舜임금이 歷山에서 밭을 갈 때에 코끼리로 갈았다고 傳하는데 여기서는 景文王이 王位를 전수받은 것을 舜이 堯에게 왕위를 받은 것에 비유한 것이고, ‘喘牛’는 漢나라 때 丙吉이라는 良宰相이 길가에 죽은 사람을 보고도 묻지 않다가 소가 헐떡이는 것을 보고는 물었는데, 이는 죄인을 벌주는 것은 獄吏의 할 일이고 陰陽을 다스리고 四時에 순응하는 것은 승상이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이었다는 故事에서 이끌어 쓴 것이다.

(1)~(4)까지의 ‘剪截’과 (5)~(7)까지의 ‘融化’가 모두 ‘正用’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8)의 뒷부분인 ‘時和而罷問喘牛’는 ‘反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用典의 頻度を 알아보기 위해 崇福寺碑銘 中の 一部分을 摘記하여 用典관계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莫不體無偏於夏範① 遵不置於周詩② 聿修芟稂稂③之譏 克祀潔蘋蘩④之薦 俾惠溥均濡於庶衆 德馨高遠於穹文 勞心而扇暍⑤ 泣辜⑥ 莫非拯羣品於大迷之域⑦ 竭力而配天饗帝 莫非奉尊靈於常樂之鄉 是知敦睦九親⑧ 實惟紹隆三寶

위의 ①은 夏禹氏의 範이며 또한 尚書의 篇名이니, 이는 洪範을 뜻한다. 이는 箕子가 夏禹의 法을 받아 洪範을 역설하였는데 “치우침이 없고 편당이 없어야 王道가 평탄하다”고 했다는 것을 이끌어 쓴 것이고 ②는 詩傳의 ‘孝子不置 永錫爾類’의 내용을 轉用한 것이다. ③은 “오곡은 아름다운 종자이지만 익지 못하면 피[稂稂] 따워만 못하므로 仁도 또한 성숙해짐이 있어야 한다”는 맹자의 말에서 이끌어 와 ‘政事의 不朋’이란 뜻으로 사용하였고 ④는 詩傳의 采蘋采蘩章의 내용, 즉 그 당시 남쪽 나라들이 周文王의 德化를 입어 제후의 부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蘋蘩을 캐어 제사를 받들었다는 것을 轉用한 것이다. ⑤는 “夏禹가 열병 걸린 사람에게 부채질 했다”는 帝王世紀의 記錄을 이끌어 쓴 것이고 ⑥은 夏禹가 죄인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울었다는 故實을 轉用한 것이다. 그리고 ⑦은 번뇌 無明에 얽매어 크게 미혹한 중생을 지혜와 설법으로 건져 준 釋迦의 事蹟을 가리킨 것이고 ⑧은 堯典의 ‘九族既睦’에서 따온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孤雲의 四山碑銘에는 用典이 아주 많으나 주로 剪截과

融化의 方法을 통하여 天衣無縫으로 精巧히 사용하여 委婉과 含蓄, 典雅와 精煉의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다. 그리고, 修飾도 駢儷文의 한 특징인데, 이는 文辭를 화려하게 장식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修飾의 方法으로 色彩를 통한 形體文飾, 音律을 통한 聲音文飾, 情緒를 통한 感性的 文飾 등 3가지를 들고 있다.¹²⁹⁾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쓰이는 修飾方法은 色彩를 위시한 화려한 語句를 통한 수식이라 할 수 있다. 색깔, 황금과 주옥, 신비스런 새[靈禽], 진귀한 짐승[奇獸], 향기로운 꽃[香花], 기이한 풀[異草] 등의 語句가 駢儷文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六朝 때의 많은 駢儷體 文에는 色彩에 관한 어휘가 全文의 글자수의 10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³⁰⁾

孤雲의 四山碑銘에도 修飾이 많음을 볼 수 있다. 四山碑銘에 쓰인 修飾의 例를 崇福寺碑銘의 한 部分을 통해 살펴보면,

미묘한 솜씨(妙技), 구름사다리(雲梯), 서리빛 바름(霜塗), 옥 행랑(瑤廊), 용의 스림(龍盤) 고래등 같은 집마루(鯨桴), 鸞鳥 그림같은 난간(畫檻), 옥같은 찰잔(玉刹), 봉래 바다의 달(蓬溟之月), 수놓은 주두(繡栢), 아리따운 단청(彩樓), 서리같은 연꽃(霜蓮), 금방울(金鈴), 봉뿔부리(鳳岡), 메기산(鯉山)

등과 같이 華美한 言辭들이 修飾語로 쓰였다. 이러한 修飾은 隱喻와 象徵 등 詩經의 ‘比’의 修辭法과 어울려 더욱 含蓄의이고 典雅한 文章을 이루고 있다.

Ⅶ. 結 論

崔致遠에 대한 學界의 研究는 그의 生涯와 思想 및 文學作品을 中心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代表作이라 할 수 있는 ‘四山碑銘’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우선 四山碑銘의 保存實態 把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內容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作業의 前段階로 孤雲의 삶을 診斷해 보았는데, 단순히 年代記의 生涯의 檢討보다는 文學作品과의 관계, 특히 四山碑銘의 撰述과 關係를 지어 살펴 보았다.

孤雲은 六頭品 出身으로서 身分的 限界를 느끼고 이의 克服을 위해 入唐 留學의 길을 택하였고 唐나라에서의 修學도 立身出世를 위한 科擧 공부에 몰두 했었다. 그래서 科試의 文體인 四六駢儷體만을 주로 익히게 되었던 것이다. 高駢의 從事官이 되기 前과 後에 많은 詩文을 지었으며 특히 〈檄黃巢書〉를 지음으로써 文名을 中國에 떨쳤을 뿐 아니라 唐書藝文志에도 올랐었다. 그러나, 그는 外國人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唐末의 社會의 혼란을 예상하여 歸國하게 되었고 在唐 시절에 닦은 능력을 國政에 발휘해 보려 했으나

129) 劉勰, 文心雕龍 卷七, 情采 第三十一.

130) 王力 主編, 앞의 책, p.1238.

羅末貴族들의 猜忌와 嫉妬로 挫折되어 隱遁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孤雲은 社會的 矛盾과 改革의 必要性을 認識한 先覺者였으나 積極的으로 批判하고 抵抗하지 못한 消極的인 知性人이요 彷徨하는 선비였다고 評價할 수 있다.

四山碑銘의 撰述動機는 當時 六頭品과 禪宗 및 地方豪族들과의 關係를 검토하여 이들 相互間의 紐帶強化와 權益保護를 위해 結托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碑銘의 內容分析을 통하여 各 碑銘의 建立過程을 알아 보았는데 崇福寺碑銘과 智證大師碑銘의 撰述過程은 明確하지가 못하였다. 특히, 智證大師碑銘의 撰述年代와 豎碑過程에 關해서는 앞으로 더 檢討되어야 할 것 같다.

現地踏査를 통해 四山碑銘의 保存實態를 調査해 본 결과, 그 保存狀態가 극히 不良한 이 드러났다. 특히, 眞鑑禪師碑는 碑閣도 없이 風雨에 그대로 露出되어 있었고, 碑 自體도 破損이 심하여 時急히 保存策을 마련하지 않으면 倒壞될 可能性이 많았다. 朗慧和尚碑는 龜頭가 損傷된 것 外에는 他碑에 비해 그런대로 잘 保存되어 있으나 管理는 아주 소홀하였고 白月葆光塔의 部材의 行彷彿적과 그 復元이 必要함을 절감했다. 智證大師碑는 破損이 심한 뿐 아니라 먼지와 이끼로 인해 判讀이 거의 不可能했으나 調査도 不許할 정도로 부분별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管理타기 보다는 아예 鳳岩寺境內의 出入을 엄격히 禁하고 있었다. 崇福寺碑는 碑片만 12片이 발굴되어 慶州博物館과 東國大圖書館에 保管되어 있는데, 乾拓 등을 통하여 碑銘의 여러 版本을 對照, 判讀이 잘못된 것을 是正하였고, 各 碑片들이 碑銘 중에서 어느 部分에 해당하는 조각들인지를 밝혔다.

四山碑銘의 構成은 文義와 敘述方式에 따라 段落을 나누어 그 內容을 구체적으로 分析하였다. 眞鑑禪師碑銘은 4段構成을 취하였고 이는 起詞, 承詞, 轉詞, 結詞에 각기 해당했다. 第1段은 序論, 第2段은 眞鑑禪師의 生涯와 功德, 第3段은 碑銘의 撰述過程, 第4段은 銘詞이고, 銘詞는 40句의 四言古詩體로 된 偈頌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偈頌은 八句를 一解로 하는 逐解換韻法으로 되어 있었다. 朗慧和尚碑銘은 3段으로 구성되었는데, 第1段은 碑銘의 撰述過程, 第2段은 行蹟과 德化, 第3段은 銘詞였다. 그런데, 이 銘詞는 五言古詩體 70句로 이루어진 偈頌인데, 첫 4句는 序詞이고 本詞는 8句씩 一解를 이루며 換韻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智證大師碑銘은 4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第1段은 佛法의 東傳過程과 智證의 禪統, 第2段은 六異, 六是 및 入寂事, 第3段은 銘詞, 第4段은 碑銘의 撰述過程(陰記)인데, 원래 孤雲이 지은 碑銘의 構成은 이와 달리 제3段과 第4段이 바뀐 모습이었을 것으로 推定하였다. 第3段과 第4段이 바뀌게 된 것은 碑銘을 새길 때 銘詞가 陰記처럼 後面으로 가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碑銘의 撰述過程’을 陰記化하여 뒤로 돌렸다고 보았다. 그런데 ‘銘詞’部分과 ‘碑銘의 撰述過程’이 바뀌게 된 원인과 經過, 豎碑過程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銘詞는 44句의 七言古詩로 된 偈頌이었고 全 銘詞가 一韻到底格으로 每句韻을 취하고 있음이 밝

혀졌다. 崇福寺碑銘은 寺蹟碑銘으로서 4段으로 구성되었는데, 第1段은 新羅 佛法의 興盛, 第2段은 鵠寺의 由來와 崇福寺의 改建過程, 第3段은 碑銘의 撰述過程, 第4段은 銘詞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銘詞는 64句의 四言古詩體로 된 偈頌이고 八句를 一解로 하는 逐解換韻法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四山碑銘의 文體分析 결과, 이 碑銘들은 4·4對偶와 6·6對偶가 主流를 이룬 典型的인 駢儷體를 이루고 있었다. 雙句對, 正對가 훨씬 많았으나 隔句對도 10%이상 되었고, 만 들기 까다롭고 힘든 反對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四山碑銘에는 用典이 많으면서도 剪截과 融化의 方法을 巧妙히 구사하여 華美한 語辭의 修飾과 함께 含蓄美와 典雅함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本稿에서는 四山碑銘의 保存實態조사, 碑銘의 撰述過程의 검토, 構成과 內容分析, 文體分析 등을 試圖해 보았으나 時間 및 經濟的인 面에서의 制約은 물론 四山碑銘 管理處의 協力不足으로 본래 意圖한 바에 未盡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四山碑銘 管理當局의 적극적인 協助아래 碑銘의 글자 一字一字에 이르기까지 具體적이고 細密한 保存實態把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文體分析도 文體史的인 面에서의 考察이 필요하다고 본다.